

安養金石文

年正月二十
之原合封焉女適

禦趙禹錫妻兵使

內外孫曾男女若

安養市·安養文化院

칼
P11.51
안670
=2

1995



安養金石文



安養市·安養文化院

祝辭



조 신22대 정조임금의 효와 충의 열이 만년을 이어지는 유서깊은 문화의고장 우리안양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안양금석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를 증명하는 많은 문화유산중에서도 금석문의 존재는 후대에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정신, 시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선인들은 개인의 사상과 행적을 금석문을 통해 후대에 알리려는 기록의 산물을 남긴 반면, 근자에 이르러 무분별하고 급격한 도시화속에 소중한 각종 금석문이 파괴되고 문관심해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중핵도시이며 정치와 행정, 문화의 요람지인 우리 안양에 산재에 있는 안양의 금석문을 찾아내어 『안양금석문』을 발간, 많은 분들이 유구한 역사의 고장에 면면이 흐르는 선인의 열과 숨결을 직접 체험하고, 소중한 학술적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금석문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상운 안양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다시한번 안양시민과 함께 『안양금석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5. 12.

안양시장 이 석 용

發刊辭



세월속에 문혀 毀損되어 가고 있는 金石文을 조사 정리하여 拓本展과 「안양 금석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先賢들의 金石文 影本을 한곳에 모아 이렇게 拓本展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감명스럽게 생각하며, 당대를 풍미했던 文章家 名筆들의 藝術的 文學的 史料를 研究考察하여 學術史料로 활용하고 保存시키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自然이 훼손 파괴당하는 오늘날 金石文 또는 많은 文化財가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렇게 마모 소실되어 가는 사료들을 조금이나마 보존하고 아끼어 역사의 敎訓으로 남기고자 하는 데 또한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拓本展을 갖기까지는 安養市 文化係 관계자들이 오랜기간에 걸쳐 조사 발굴 정리하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拓本作業을 수행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조인주 문화계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金石文 拓本展과 「안양 금석문」발간이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學術研究와 文化財로 큰 가치가 있을 기대하며 끝으로 도와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幸運이 있길 祈願하는 바입니다.

1995. 12.

안양문화원장 이 상 윤

安養金石文

목 차

I. 금석문의 개관	
한국금석문 발전상	8
안양의 금석문	14
석비 제도와 형식	19
분묘와 묘비	20
조선시대의 장규	22
석비 찬자와 서자	25
II. 금석문 현황	
사 적 비	26
신 도 비	31
묘 비	46
부 도 비	79
애 각	89
당 간 기	93
공 적 비	96
알 각	97
기 타	103
부 록	109

I. 금석문(金石文)의 개관(概觀)

금 석문(金石文)이라 하면 금문(金文)과 석문(石文)을 말하는 것이다. **금** 문이라 하면 금속의 면(面)에 각명(刻銘)한 문자와 문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석문(石文)이라 하면 암석(岩石)의 면에 새긴 문자와 문장을 말하는 것이다.

석문은 중국에서 일찌기 은(殷)나라 때부터 성행하였고 발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였고 이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금석문은 중국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며 발전하여 왔다.

한국금석문을 금문(金文)과 석문(石文)으로 구분하여 그 유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첫째 금문계(金文系)로는 ① 기명(器銘)으로 동경명(銅鏡銘), 완천명(腕釧銘), 동호명(銅壺銘), 초두명(鏹斗銘), 마탁명(馬鐸銘), 촉대명(燭臺銘) 등이 있고 ② 무기명(武器銘)으로는 도검명(刀劍銘), 총포명(銃砲銘) 등이 있으며 ③ 불기명(佛器銘)으로는 조상명(造像銘), 동종명(銅鍾銘), 금판경명(金板經銘), 찰간면(擦竿銘), 사리함명(舍利函銘), 당간기(幢竿記), 향완명(香垵銘), 금명(禁銘)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금문(金文)이 많다. 둘째로 석문계(石文系)로는 ① 암각화(岩刻畫)가 있으니 반귀대암각화(盤龜臺岩刻畫), 소전리암각화(小前里岩刻畫), 양전동암각화

(良田洞岩刻畫), 금장대암각화(金丈臺岩刻畫) 등이 있고 ② 비명(碑銘)으로는 순수비(巡狩碑), 성비(城碑), 지비(池碑), 사적비(事蹟碑), 유허비(遺墟碑), 능비(陵碑), 묘정비(墓庭碑 : 神道碑, 墓碣, 墓表, 墓誌), 묘탑비(墓塔碑) 그리고 기적비(紀績碑), 공적비(功績碑), 선정비(善政碑), 송덕비(頌德碑) 등이 있다. ③ 불교관계 석문(石文)으로는 조상명(造像銘), 탑기(塔記), 사리기명(舍利器銘), 석등명(石燈銘), 석경(石經)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금석문에 포함시켜야 할 기명(記銘)이 있는데, 태지(胎誌), 국장생석표(國長生石標), 석조명(石槽銘), 애각(崖刻), 암각(岩刻), 부도명(浮屠銘) 등이 그러하다. 또한 와전명(瓦搏銘), 토기명(土器銘), 자기명(磁器銘) 등이 있다.

한국 금석문의 발전상(發展相)

한 국의 비명(碑銘)이 시초로 한 것은 삼국시대이고 영일냉수리비(迎日冷水里碑)를 서기 383년(新羅 奈勿王 28)에 건립한 것으로 올려잡고 있으니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4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가 서기 414년(長壽王 2)에 건립되었으니 한국비명의 시초는 4세기 후반경에 5세기 전반경에 기원한 것이라 하겠다. 삼국시대의 비명(碑銘)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로 예를 들어본다.

碑名	王朝	時代
迎日冷水里碑	신라	383(奈勿王 28)~443(訥祗王 27)503년(智證王 4)
廣開土王陵碑	고구려	414年(長壽王 2)
中原高句麗碑	고구려	394~491(長壽王代)
尉州川前里書刻石	신라	(乙巳銘) 525年(法興王 12)
尉州川前里書刻石	신라	(己未銘) 539年(法興王 26)
菁堤碑(丙辰銘)	신라	536年(法興王 23)
亦城碑	신라	551年 이전(眞興王代)
明活山城作城碑	신라	551年(眞興王 12)
眞興王拓境碑(昌寧)	신라	561年(眞興王 22)
眞興王巡狩碑(黃草嶺)	신라	568年(眞興王 29)
眞興王巡狩碑(磨雲嶺)	신라	568年(眞興王 29)
眞興王巡狩碑(北韓山)	신라	569年(眞興王 30)
戊戌塢作碑	신라	578年(眞智王 3)
南山新城碑	신라	591年(眞平王 13)
砂宅智積碑	백제	654年(義慈王 14)

이는 삼국시대의 석비(石碑)만을 열기(列記)하여 보았다. 이들 석비는 자연암석의 변죽을 쳐서 대체로 비형태로 하고 그 단면을 대충 갈아서 비명(碑銘)을 각자(刻字)한 것이다. 그 서체(書體)는 광개토왕비는 한예체(漢隸體)를 따랐다고 보이며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는 중국의 서체에 준한 것이라 하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고졸(古拙)하면서 강방준엄(剛方峻嚴)한 느낌은 고구려인의 기풍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는 백제 무녕왕릉묘지석(武寧王陵墓地石)과 같이 중국의 육조체(六朝體)의 계보라 하겠으나 역시 부드럽고 유려(流麗)한 느낌은 백제인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신라의 영일냉수리비(迎日冷水里碑)를 비롯하여 여러 비의 서체가 중국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삼국중 신라는 독자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 구수하고 토속화된 향체(鄉體)를 창조하여 신라인의 전통적인 고유문화를 고집한 정취라 하겠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석비는 격식은

「辛亥年二月廿六日南山新城作節云云」

「戊戌年四月朔十四日癸冬里村高口塢作記之…」

「甲寅年正月九日奈祇城砂宅智積」

라 하였다. 곧「干支年何月何日…」형식으로 곧 석비의 첫머리에 간지를 놓고 하월(何月) 하일(何日) 등 연월일을 명시하고 그 비의 명칭을 기명(記銘)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게 되면 그 처음부터 석비(石碑)의 건립이 활발하고 또 석비의 형식도 정돈되어 갔다. 이 시기에 건립된 주요 석비는 다음과 같다.

太宗武烈王陵碑(螭首·龜趺) 661(文武王 元年)

四天王寺碑(龜趺) 7世紀 後半

金仁問墓庭碑(龜趺) 696년경

10 한국 금석문 발전상

高仙寺誓幢和尚塔碑(龜趺) 765-780년

聖德王陵碑(龜趺) 798年(元聖王 14)

菁堤碑(貞元銘) 798年(元聖王 14)

이들 석비는 통일신라시대의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능비(陵碑), 묘비(墓碑), 사원비(砂院碑) 등이다. 이 시기의 석비는 청제비(菁堤碑)의 정원명(貞元銘)과 같이 삼국시대의 석비의 형식이 잔존(殘存)하기도 하지만 이미 정연한 이수(螭首), 비신(碑身), 귀부(龜趺)를 완비하여 정리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능비(陵碑)의 이수(이首)는 6마리의 용신(龍身)이 좌우 3마리씩 내향(內向)하여 ㄱ원두형(圓頭形)을 이루고 그 정면은 앞발은 두마리 용의 앞발을 모아 여의주(如意珠)를 들고 그 밑 중앙에 규액(圭額)이 있어 태종무열대왕지비(太宗武烈大王之碑)라 전액(篆額)하였다. 또 귀부(龜趺)는 앞에 귀부(龜趺)가 힘차게 사출(斜出)하여 씩씩하고 유려(流麗)한 귀갑(龜甲)이 밑으로 네 다리가 사출(四出)하여 지면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의 사실적(寫實的)인 표현이다. 그리하여 당대(唐大)의 석비의 계보에 속하는 것으로 신라의 전형적인 원두형(圓頭形) 이수(螭首)와 사실적(寫實的)인 귀부(龜趺)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김인문(金仁問)앞 묘비의 귀부(龜趺)와 앞서서 사천왕사비(四天王寺碑)의 귀부는 태종무열왕릉비의 귀부에 준하는 사실적(寫實的)인 통일양식이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며 점차 사실경향(寫實傾向)에서 도안경향(圖案傾向)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의 후기와 말기에 이르게 되면 사원(寺阮)의 고승대덕(高僧大德)의 묘탑비(墓塔碑)의 건립이 성행하였다. 신라말기에 이르러서는 선종구산문(禪宗九山門)의 개조승(開祖僧)의 묘탑비(墓塔碑)가 그 대표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묘탑비(墓塔碑)의 유례(類例)가 허다하여 이에 모두 기재할 여유

는 없다. 쌍계사진감선사탑비(雙溪寺眞鑑禪師塔碑)를 비롯하여 수많은 탑비가 있는데 특히 성주산무렵대사백월보광탑비(聖住山無染大師白月葆光塔碑),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智異山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 초월산대승복사비(初月山大崇福寺碑), 회양산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驤陽山鳳岩寺智證大師寂照塔碑) 등은 유명한 것이다. 이들 탑비의 ① 이수(螭首)는 구름 사이에서 9룡(龍)이 상쟁(相爭)하며 정상에는 보주(寶珠)가 돌출하고 정면에는 제액(題額)이 있어 전서(篆書)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② 귀부(龜趺)는 경부(頸部)가 짧고 직립(直立)하여 목덜미로부터 주름지어 머리부분은 귀면(鬼面)에 가까운 수형(獸形)이고 혹은 여의주(如意珠)를 물기도 하였으며 귀갑(龜甲)은 도안화(圖案化)하여 경직(硬直)되었다. ③ 비신(碑身)은 복연비좌(伏蓮碑座)와 양연비두(仰蓮碑頭)로 만들어졌고 그 비좌(碑座)와 비두(碑頭)안으로 들고 있는데 전후비면(前後碑面)이 넓고 그 두께가 얇다.

④ 비문(碑文)은 앞면에 새겼는데 그 첫머리에

「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誡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 并序」

라 하고 또는

「有唐新羅國故智異山雙溪寺教眞鑑禪師大空塔碑銘 并序」

라 하였고, 그 다음에는 찬자(撰者)와 서자(書者)를 기록하고 비문과 명(銘)을 새겼다. 비명서체(碑銘書體)는 대체로 구양순(歐陽詢)서체를 본딴 것이 지배적이었다. 최치원(崔致遠)은 구양통(歐陽通)의 서풍(書風)을 따랐다고 보아진다. 어쨌든 이들 석비의 형식은 당석비(唐石碑)의 계보인 태종무열왕비(太宗武烈王碑)의 사실적(寫實的)이면서 전형적인 신라 전기(前期)의 비에서 발전한 당석비(唐石碑)의 계보로써의 도안적(圖案的)이면서 변형적인 신라 후기의 양식이 성립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역시 명승대덕(名僧大德)의 묘탑비(墓塔碑)의

12 한국 금석문 발전상

성행은 여전하였다. 그리고 보리사(菩提寺) 대경대사탑비(大鏡大師塔碑)를 비롯하여 보원사(普願寺) 법인국사보승탑비(法印國師寶乘塔碑)에 이르는 기원 900~1000년대의 많은 묘탑비(墓塔碑)가 있다. 이들 묘탑비의 조형적(造形的)인 양식과 서예적인 서체가 신라의 영향을 그대로 전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귀부(龜趺)에 있어서 귀갑문(龜甲文) 안에 화문(花紋)과 불(卍)자문이 들어가고 이수(虯首)는 고각(高刻)이고 화염보주(火炎寶珠) 등 수식(修飾)이 강하여지며 비명(碑銘)은 구양순(歐陽詢)체가 주류이지만 행서체(行書體)가 가침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묘탑비(墓塔碑)도 기원 1000년대 이후에는 규제(規制)가 무너지고 변형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① 「浮土寺弘法國師實相塔碑」는 비상단(碑上段)에 「開天山浮土寺故國師弘法大禪師之碑」라는 전서(篆書)가 첨가되고

② 법천사(法泉寺) 지광국사현묘탑비(智光國師玄妙塔碑)는 귀부(龜趺)의 배문(背文)이 방격자(方格子) 안에 육각귀갑(六角龜甲)을 넣고 그 속에 왕자(王字)를 넣은 변형귀갑문(變型龜甲文)이다. 이수(虯首)는 천각(淺刻)이고 네모가 솟아오른 모자형이며 윗부분 주변에 귀꼴은 장식이며 그 중앙에 복식(伏飾)·양화(仰花) 보주(寶珠)를 거듭 쌓은 상륜(相輪)과 같은 장식을 하였다. 비신(碑身)은 상부에 전서비제(篆書碑題)가 있고 주위로 유려(流麗)한 보상도문(寶相度文)을 돌리고 측면은 고조(高彫)의 운룡문(雲龍文)을 새기는 등 과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었다. 특히 기원 1100~1392년에는 더욱 변화하여 잡다한 형이 나타났다.

① 반암사(盤岩寺) 원경왕사비(元景王師碑)와 같이 귀부(龜趺)에 가침석(加瞻石)으로 처리하였다. ② 보경사(寶鏡寺) 원진국사비(圓眞國師碑)는 귀부(龜趺)에 이수(虯首)가 생략되고 비신(碑身) 상부를 말각(抹角) 처리하였다. ③ 선봉사(僊鳳寺) 대각국사비(大覺國師碑)와 같은데는 장방형

의 농대(壘臺) 받침에 옥개형(屋蓋形)의 가첨석(加瞻石)으로 성립되어 창성사(彰聖寺)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로 그 형식이 이어진다. ④ 보광사(普光寺) 금수비(金修碑)는 장방형의 농대(壘臺)받침에 비신(碑身) 상부를 말각(抹角)처리하는 형식이 성립되어 서봉사(瑞鳳寺) 현오국사탑비(玄悟國師塔碑)로 이어지고 있다. ⑤ 회암사(檜岩寺) 선각왕사비(禪覺王師碑)는 귀부(龜趺)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그 비신상부를 고각용(高刻龍)의 반원형 이수(螭首)로 하고 규액(圭額)을 설(設)하여 「선각왕사지비(禪覺王師之碑)」라 전액(篆額)되어 있어 그 양식이 조선 초 원각사비(圓覺寺碑)에 전승한다. 고려후기에 이르면 석비(石碑)의 양식이 정제(整制)된 규제(規制)가 없어지고 다종다양(多種多樣)한 비가 난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고려시대의 석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승탑비(僧塔碑), 승비(僧碑), 사원비(寺院碑)등 불교계통의 비명(碑銘)이 그 전부인 듯하다. 따라서 당시의 능묘(陵墓)의 비로서는 신성왕후(神成王后) 정능(貞陵)과 경종영능(景宗榮陵)에 귀부(龜趺)가 있어 능비(陵碑)의 존재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고려말경의 분묘(墳墓)에 묘비가 몇개 있을뿐으로 고려의 능묘의 비가 없다. 이렇게 고려시대에는 능비(陵碑) 또는 묘비가 없고 묘지명(墓誌銘)으로 대신하고 있어서 알려지고 있는 묘지명만도 140여점(李蘭暎「韓國金石文追補」)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분묘의 비가 없이 그 대부분이 묘지명(墓誌銘)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양의 금석문(金石文)

안양의 금석문은 아직까지 금문이 발견된것은 없고 다수가 석문이라 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에서 발간한「경기금속대관(京畿金石大觀)」및 시흥군지 발간시 함께 발행된「시흥금석총람(始興金石總覽)」에서 안양의 금석문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서울 및 지방의 유서깊은 고도에 비해 양적 측면에선 부족하나 시대적인 분포도나 석문의 다양한 현황을 볼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적비(事蹟碑)

- 만안교비(萬安橋碑)
- 삼막사적비(三幕事蹟碑)

◎ 신도비(神道碑)

- 박서신도비(朴愷神道碑)

◎ 묘 비(墓碑)

- 김 순 묘지(金 恂 墓誌)
- 류정현 묘갈(柳廷顯 墓碣)
- 류덕옥 묘갈(柳德玉 墓碣)
- 심 간 묘비(沈 諫 墓碑)
- 이후달 묘비(李厚達 墓碑)

◎ 부도비(浮屠碑)

- 안양사 부도(安養寺 浮屠)

- 반월암 부도(半月庵 浮屠)
- 염불암 부도(念佛庵 浮屠)
- 불성사 부도(佛性寺 浮屠)

◎ 애 각(崖刻)

- 마애불(磨崖佛)
- 마애종(磨崖鍾)
- 마애각화(磨崖刻畵)

◎ 당간기(幢竿記)

- 당간지주명문(幢竿支柱銘文)

◎ 공적비(功績碑)

- 불망비(不忘碑)

◎ 암 각(岩刻)

- 삼귀자(三龜字)
- 매바위각자(매바위刻字)
- 삼산동천각자(三山洞天刻字)
- 만력십팔년조각자(萬曆十八年造刻字)
- 신금대각자(神金臺刻字)
- 등곡대각자(燈谷臺刻字)

◎ 기타(其他)

- 감로정각자(甘露井刻字)
- 약사영천각자(藥師靈泉刻字)
- 정려판(旌閭板)
- 이성환시비(李星煥詩碑)
- 와당문양(瓦當紋樣)
- 주초석문양(柱礎石紋樣)

16 안양의 금석문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양의 석문은 멀리 신라 흥덕왕 2년(827년)의 중초사지 당간지주(中初持址 幢竿支柱) 명문에서 신라말 고려초로 추정하는 마애종(磨崖鍾)과 조선 전후기의 불교적인 사적 또는 유교적인 각종 석비등의 다양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간지주 명문의 경우 조성연대와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 명문이며 애각중 마애종과 마애불(磨崖佛) 또한 사료적 가치가 매우높고 뚜렷한 형태를 가진 유일한 작품들이다. 또한 만안교비(萬安橋碑)는 사적비(事蹟碑)로서 지금으로부터 200년전에 설치된 오늘날 안양발전의 효시이며 안양의 근본이 되는 사적비이다.

묘비는 고려시대에 묘지명만이 성행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묘지명과 묘비가 병행하였다. 안양의 경우에도 묘역조성에 있어 수많은 묘비가 허다하나 대부분이 글자가 마모되고 결락(缺落)되어 있어 겨우 묘비의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목되는 점은 묘비 및 묘역의 현황을 통해 지역적으로 누대(婁代)에 걸친 세거지와 가문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곧 창령조씨, 진주하씨, 전주이씨, 문화류씨, 청송심씨, 진주류씨, 덕수장씨, 전주류씨, 안동김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등이다.

묘비는 신도비, 묘갈, 묘표로 구분되는데 묘표만을 세우는 예와 묘표와 묘갈이 함께 하기도 하고 정4품이상의 관직을 받을 경우 또는 국가에 공적이 있을때 묘소 아래 길가에 신도비를 세우며 후대에 증직이 될 경우에 추가로 기록하여 비를 다시 세우기도 한다.

부도(浮屠)는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보관하는 곳인데 안양사 부도비는 현존하지는 않으며 다만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안양사 칠층석탑명(安養寺 七層石塔銘)이라 하여 일부의 탁본내용이 전하여진다. 그외에 부도로는 반월암에 팔양장씨 대선사 탑과 명성당 대사지탑이 있고 염불암에는 서영당지홍, 봉인당부도등이 있는데 이들 부도의 구조양식은 기단위에

석종형 탑신과 승려의 당호를 음각 하였고 밀양장씨 탑은 사각탑신에 팔각 지붕형태의 개석을 올려 놓았다.

이들 부도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부도로써 명문에 따라 누구의 부도인지 언제 건립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가 있다. 이외에 4기의 애각(崖刻) 부도가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형태의 부도로 불성사의 각원선(覺圓禪)부도, 반월암 주변의 서경당 부도 염불암 경내에 현진당 및 고종27(1890년)년 부도등이 있는데 고종27년에 제작된 부도는 위치가 너무 높아 현재로선 범명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작연대만을 알수 있을 뿐이다.

이들 애각부도는 바위면을 다듬어 중앙에 암공(岩孔)을 만든후 암공 바닥에 다시 적은 암공을 만들어 사리나 유골의 재등을 보관하고 암공자체는 크기에 맞는 사각들로 다시 끼워 놓는데, 현재 안양관내의 애각부도는 암공입구들은 분실되어 없으며 불자들간에 암공에 잔돌을 던져 돌이 들어가면 소망이 성취된다는 신앙적 믿음의 돌조각이 암공에 들어가 있다.

암각으로는 석수동 삼막사 우측 백련암지(白連庵址)에 「삼귀자(三龜字)」삼성산 정상부의 「남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자 관양동 오촌마을 「삼산동천(三山洞天)」 및 불성사 「만력십팔년조」가 있다.

「삼귀자」는 백련암지, 즉 백련암에서 수도를 하던 구한말 지운영(池雲英)의 필적으로 지운영은 삼귀자 우측에 「관음몽수장수영자(觀音夢授長壽靈字)」라 하여 꿈에 관음보살을 본 후 글씨를 썼음을 알수가 있다. 「남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은 삼성산 매바위에 각자 되었는데 대청광서 이십년 갑오 3월로 일설에 청나라 고승이 사람이 죽은후 재를 뿌리는 최고의 길지 라고 극찬한 곳이며 각자 또한 청나라 고승이 하였다 하나 확인할 길이 없다.

「삼산동천(三山洞天)」은 관양동 오촌마을로 이곳은 일찌기 능정원 좌승지를 역임한 삼산 오익서(吳益瑞)가 살명 생전에 각자한 것으로 알려져

18 안양의 금석문

있고 오촌마을이란 마을 이름도 보성오씨의 오래된 세거지임에 붙여진 명칭이다.

「만력십팔년조(萬曆十八年造)」는 화강암에 각자된 선조23(1590년)년 표석(表石)으로 이는 불성사 약력중 선조때 서산대사의 중창연대와 맞물리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밖에 기타 석문중 관양동「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는 시흥군 현감을 지낸 이태응(李泰應)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진 비로 현감 이태응은 공조좌랑으로 재직중 고종3년(1866년) 12월 5일 시흥현감으로 부임후 고종5년(1868년) 정월 29일 황해도 송화현감으로 전임된 바 주변에선 “마을의 흥망을 좌우하는 영험한 현감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감로정(甘露井)」은 조선 헌종때 김창록 이라는 사람의 등에 八자가 새겨져 있어 돌거북을 만들어 시주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약사영천」각자는 근세 작자미상의 “관악산”유람가 한귀절에 「반월암(半月庵)에 들어가니 약수영천(藥水靈泉) 양전하고」라 하여 샘과 각자된 석문을 표현하고 있다.

「등곡대(燈谷臺)」는 세조때의 왕사였던 흑의 재상 학조대사(學祖大師)가 수도하던 바위인데 등곡대 뒤로는 학조대사가 수도하던 등곡굴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풍양조씨 정려판(豐壤趙氏 旌閭版)」은 유일한 목판으로 이번 석문탁본시 함께 탁본작업이 진행됐는데 이는 중초사지 출토 신라시대의 연화문 숫막새 문양 및 삼막사 주초석 문양과 함께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며 과학적 보존과 함께 보호대책을 요하는 자료들이다.

이 밖에 최근 석문으로는 심간(沈諫) 묘비문과, 이성환(李星煥) 시비를 탁본 대상에 포함 시켰고 그외에 삼막사 암각화, 신금대각자 및 사찰 신·증축시의 시주자 명단등을 금석문 조사시 일괄적으로 작업대상에 포함 시켰다.

석비(石碑)의 제도(制度)와 형식(形式)

석 비의 제도와 형식은 고려시대 말부터 그 규제가 허물어져 없어졌고 **□** 형식 또한 변화하여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다. 조선시대의 석비의 제도와 형식은 앞의 고려말의 제도와 형식을 답습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석비는 고려시대의 사원비(寺院碑), 승탑비(僧塔碑)를 중심으로 한 불교적인 석비가 아니고 서원비(書院碑), 능묘비(陵墓碑), 선정비(善政碑) 등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인 석비로 전환하고 있어서 조선시대의 새로운 석비로서 특징을 갖추어 나갔다. 그리고 특히 공적인 국가로서의 건비보다 사적인 민간으로서의 입비가 많았기 때문에 퇴화경향을 빚어내고 개인취향에 맞추어 복잡한 제도와 다양한 형식으로 변제되었다.

이들 석비의 제도와 형식을 공통적인 것끼리 묶어보면 ① 귀부·비신·이수로 갖춘 석비 형 ② 농대(壟臺)·비신·가침석으로 갖춘 석비 형 ③ 방대·비신·규벽으로 갖추어진 석비 형 ④ 방대·상 비신·상부를 원형처리하는 석비 형 ⑤ 농대와 이수·귀부와 가침석으로 된 석비 형 등 5가지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①·②·③·④ 형은 조선석비의 정형에 속하는 유형이고 ⑤형은 앞의 정형에 속하는 유형(類型)에서 벗어난 잡형(雜型)이라 하겠다. 첫째 ①형은 조선초에 건원능신도비(健元陵神道碑), 헌능신도비(獻陵神道碑), 원각사비(圓覺寺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적 차원의 능신도비(陵神道碑), 사원비(寺院碑)로 이용되고 이는 당비계통(唐碑系統)의 복고형식(復古形式)인데 건원능신도비(健元陵神道碑)는 귀갑문(龜甲文)으로 되어 있지만 헌능신도비(獻陵神道碑)와 원각사비(圓覺寺碑)는 귀갑문이 아니고 하엽(荷葉)을 덮어 조선비의 귀부의 특색

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후대로 내려가며 귀부와 이수(耳首)의 형태와 문양이 여러모로 변화하며 조잡하여진다. 민간의 묘비의 신도비는 이 ①형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

둘째 ②형, 곧 장방형 농대와 옥개형 가침석으로 된 석비는 비교적 단조하면서 단아한 것으로 고려말에 발생하여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이용하였다. 이 ②형의 석비도 후대로 내려가며 그 형태를 약간 바꾸며 문양으로 장식하면서 가장 널리 이용되었는데 유허비(遺墟碑), 서원비(書院碑), 정려비(旌閭碑), 선정비(善政碑), 송덕비(頌德碑), 묘비(墓碑), 묘답비등 그 석의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③형 농대, 비신, 규벽(圭壁)으로 갖추어진 석비, ④형 방대(方臺), 비신, 상부원형처리(上部圓形처리)의 석비는 같은 약식에 속하는 유형으로 좀 격이 낮은 선정비(善政碑), 송덕비(頌德碑), 묘표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넷째 ⑤형, 곧 농대와 이수, 귀부와 가침석으로 된것은 그 등격으로 보아 앞의 ①형과 ②형과의 사이에 두어야 할 품격으로 ①형에 해당하는 이용상황을 보이고 있다.

분묘와 묘비

① 분묘(墳墓)의 묘역(墓域)

분묘(墳墓)도 규제가 있어 조선시대 분묘의 묘역에 대한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선의 분묘는 위원(圍垣)을 이용하지 않고 사초(莎草) 곧 사대(莎臺)로써 묘역을 구획한다. 묘기(墓基)를 둘러 있는 사초(莎草)와 묘제(墓祭)를 행할 수 있는 사대(莎臺)를 묘역의 범위로 잡고 또 사초(莎草)의 주위를 송수(松樹)를 둘러 환송(環松)을 형성하는데 이 환송(環松)을 벗

어나지 않는 환송내(環松內)를 묘역으로 삼고 있다. 묘역내의 각품등(各品等)의 예장(禮葬)에 있어서 조선초에는 숙석(熟石)을 써서 삼계(三階)를 만들었는데 그 폐단을 막기 위하여 세종시에 이를 개혁하여 삼계(三階)를 잡석(雜石)을 이용하고 사대(莎臺)에 숙석을 이용할 때는 고(高)1척을 넘어서는 안되고 숙석(熟石)을 이용할지라도 사대(莎臺)의 토중(土中)에 들어가는 것은 잡석을 이용하고 역시 고(高)1척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② 분묘(墳墓)의 성분(成墳)

분묘(墳墓)에는 그 성분(成墳)에 대하여도 규제가 있었으니 조선시대의 성분(成墳)의 제도적인 제한이 있었다. 분고(墳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券8에 「분고사척(墳高四尺)」이라 하였고 『가례증해(家禮增解)』券6에도 「분고사척(墳高四尺)」이라 하였다 하니 이것으로 성분(成墳)의 분고(墳高)는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이 모두 4척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지는 이대로 준수된 것이 아니라 그 과다자행(過多恣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분경(墳徑)에 대하여는 『사례편람(四禮便覽)』券5에 기경십육칠척(其徑十六七尺) 합장즉이십여척(合葬則二十餘尺)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성분(成墳)의 분경(墳徑)은 단장(單葬)의 경우는 16·7척이고 합장(合葬)의 경우는 20여척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분경(墳徑)도 지키지 못하고 그 과다자행(過多恣行)하고 있다.

③ 분묘(墳墓)의 석물(石物)

조선시대는 숭조사상(崇祖思想)이 돈독하여 치묘에 극진하였으니 그 일례로 분묘에는 석물을 부설(附設)하였다. 조선초에 분묘에 석물을 설치하여 사치를 하는 경향이어서 태종 10년에 석실·석문·석인·상석등에 대한 금령이 있었고 그 후도 석물설치에 대한 금지가 간간 있었으나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았다.

조선시대(朝鮮時代) 가례원류(家禮源流)와 가례증해(家禮增解)의 장규(葬規)

1. 『家禮源流』卷十一

墳高四尺 立小石碑於其前 亦高四尺 趺高尺許

司馬溫公曰 按今式墳碑石獸 大小多寡 雖各有品數

廣記

封王 : 螭首 高三尺二寸 碑身 高九尺 闊三尺六寸 龜趺 高三尺八寸

一品 : 螭首 高三尺 碑身 高八尺五寸 闊三尺四寸 龜趺 三尺六寸

二品 : 盖用麟鳳 高二尺八寸 碑身 高八尺 闊三尺二寸 龜趺 高三尺四寸

三品 : 盖用天祿辟邪 高二尺六寸 碑身 高七尺五寸 闊三尺 龜趺 高三尺二寸

四品 : 圓首 高二尺四寸 身 高七尺 闊二尺八寸 方趺 高三尺

五品 : 圓首 高二尺二寸 身 高六尺五寸 闊二尺六寸 方趺 高三尺八寸

六品 : 圓首 高二尺 身 高六尺 闊二尺四寸 方趺 高二尺六寸

七品 : 圓首 高一尺二寸 身 高五尺五寸 闊二尺二寸 方趺
高二尺八寸

墳塋

封王 : 塋地 周圍一百步 每面二十五步 墳高二丈 四圍墳牆 高一丈
石人四 文二武二 石虎二 石羊二 石馬二 望柱石二

一品 : 塋地 周圍九十步 每面二十二步半 墳高一丈八尺 四圍墳牆
高九尺 石人二 文官 用文石二 武官 用一文一武 石虎二 石羊二

石馬二

望柱二

二品：塋地 周圍八十步 每面二十步 墳高一丈六尺 四圍墳牆 高八尺
石人二 文官 用文石二 武官 用一文 一武 石虎二 石羊二 石馬二
望柱二

三品：塋地 周圍七十步 每面一十步半 墳高一丈四尺 四圍墳牆 高七尺
石虎 羊 馬望柱 上同

四品：塋地 周圍六十步 每面一十五步 墳高一丈二尺 四圍墳牆 高六尺
石虎二 石馬二望柱二

五品：塋地 周圍八十步 每面一十二步半 墳高一丈 四圍墳牆 高四尺
石羊二 石馬二 望柱二

六品：塋地 周圍四十步 每面十步 墳高八尺

七品：塋地 周圍三十步 每面七步半 墳高八尺

庶人：塋地 九步 穿心計一十八步

唐葬令

五品以上 螭龜趺 降五品 爲碣 方趺 圓首 其高四尺

儀節

按國朝 稽古定制塋地

一品：九十步 每品 減十步

七品以下：不得過三十步

庶民：止於九步

墳

一品：高一丈八尺 每品 減二尺

七品以下 不得過六尺

石碑

一品：螭首

二品：麒麟

三品：天綠辟 皆用龜趺

四品至七品：皆圓首 方趺 其石人 石獸 長短 闊狹 以此減降 其石人 石獸 亡柱 皆有 次第 著在令甲可考也 貴得同賤 賤雖富 不得同貴 廬遠者於所當得縱不能盡去 少加減殺可也

經國大典

墳墓定限 禁耕牧

宗親則〈一品〉四面 各限一白步 〈二品〉九十步 〈三品〉八十步 〈四品〉七十步 〈五品〉六十步 〈六品〉五十步

文武官則 遞減一十步 〈七品〉以下 及 〈生員·進士〉有蔭子弟 同六品 女從夫職 耕墾在葬前者 勿禁 京城底十里及人家百步內 勿葬

2. 『家禮增解』券六

碑

封王：螭首高三尺二寸 碑身 高九尺 闊三尺六寸 龜趺 高三尺八寸

一品：螭首高三尺 碑身 高八尺五寸 闊三尺四寸 龜趺 高三尺六寸

二品：用麟鳳蓋

三品：天祿辟蓋 皆用龜趺

四品以下：圓首方趺 碑身之高 每品減五寸 闊減二寸 螭

二寸

封演曰 奏漢以來 帝王陵前有石 麒麟石 石馬之屬 人臣墓前 有石羊 石虎 石人 石柱之屬 皆以表飾古壟 如生前之儀
 儀節 按國朝 稽古定制 按塋地周圍 墳高尺數 石碑蓋跌 石人 石獸之制 略與廣記同

석비 찬자(撰者)와 서자(書者)

석 비 건립을 위해서는 석비를 만드는 석공, 비문을 짓는 찬자, 비문을 쓰는 서자, 그 비문을 새기는 각자공(刻字工)등이 힘을 모으게 된다. 비를 건립하는 자는 석공, 찬자, 서자, 각자공을 선정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되고 선택의 신중함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지 상정(人之常情)이라 할수 밖에 없는데 아쉬운점은 찬자와 서자 두전(頭篆)의 서자는 명시되는 반면 석공과 각자공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문의 서자와 찬자는 가능한 관위, 학문, 문장등이 당대의 유명인사를 고르며 탁월한 문장과 필문을 초청하는데 이러한 관례는 고대비문도 같지만 조선시대의 유교적습관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후대에 글과 문장을 남기게 되어 학술적인 조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비문 서체는 보통 두행자는 전서로 하고 본비명은 해자(楷字)로써 각자 하는바 일반적으로 조맹부 서체의 계보에서 부드러운 해자의 정취와 석봉 한호의 해자로 이어지며 후대에는 개성이 넘치는 해자와 행서(行書)로 발전하여 왔다.

금석문 현황(金石文 現況)

1)사적비(事蹟碑)

만안교비(萬安橋碑)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260번지
- 연대 : 조선 정조 19년 (1795년)
- 규모 : 고 164cm, 폭 64cm, 두께 34cm

- 천자 : 서유방
- 서자 : 조윤형
- 전면서자 : 유한지

【碑文】

萬安橋(前面題額)

萬安橋碑頌 并序

南充縣治南二十里 有安養川 卽華城輦路也 惟我聖上 歲謁園寢 由是川以濟 今春又奉慈駕 利涉川 以是顯于世 凡幸行地方有川 必有橋 橋以木駕過 輒撤去 水之漸水之濯涉者 病焉 前道臣 臣徐龍輔 以是橋之有所重也 將以石代之未及 就賤臣受命夾苴 以孟秋啓基三閱月 而功告成延可十五丈 袤可四丈 高可三丈 爲閘者五速位 上聞 賞監董人及 工匠 有差 特錫名曰萬安 臣謹按王者就矯之安 始於漢帝之長安 而未聞奉慈駕以行 徒杠輿梁作於成周 而亦未聞代之以石傳之萬年也 是橋也幸處華城輦路 聖駕之一年一度 慈駕之十年一度 駕六龍和 八變安而往 安而還 萬萬年如一 而推其餘迺及萬姓 使遠近行李視以康莊 無揭厲 險阻之患 而萬萬年載聖恩 頌慈德 豈不誠盛矣乎哉 橋之始也 代石 于川之傍 有石出焉 可以□□□□減其半 神若有助 其亦異矣 臣拜手稽首 記其事系之 以頌曰

王幸于園一度一歲
天臨虹橋歲以萬計
與福偕至其下有川
時奉慈駕萬安萬年
恩及萬姓坦履齊歡
於千於萬安如砥磐

正憲大夫知中樞府事兼京畿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水原府留守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都巡察使奎章閣檢校直提學 臣 徐有防 謹撰

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臣 曹允亨 謹書

學臣 俞漢芝 前面謹書

監董 僉使 金天寶 營裨 嘉善 徐浹修

五衛將 張焜 營裨 嘉善 徐毅麟

五衛張 金大衍 營吏 李孝錫

五衛張 金之變

刻手邊 李三興 冶匠邊首 鄭一成

石手邊首 崔貴得 虹霓邊 崔興瑞 朴福芑

上之十九年 九月 日立

【 翻譯文 】

만안교비송(萬安橋碑頌) - 서문을 곁함 -

남충현(南充縣)의 주치(州治) 남쪽 二〇리에 안양천(安養川)이 있는데 바로 화성(華城)으로 가는 연로(輦路)이다. 우리 성상(聖上 : 정조)께서 해마다 원침(園寢 : 思愼世子陵)을 전알(展謁 : 省墓)하려면 이 하천을 건너게 된다. 올 봄에도 자가(慈駕 : 어머니가 탄 수레. 여기서 是 惠慶宮洪氏를 가리킴)를 모시고 이 내를 건넜으니 이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무릇 행행지(幸行地 : 임금의 행차하는 곳)에는 하천이 있기 마련이고 하천마다 다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 다리는 나무로 놓았다가 왕의 행행이 지난 뒤에는 바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얼름 풀릴 때나 장마가 질 때에는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였다. 전 도신(道臣) 서용보(徐龍輔)가 이 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로써 대체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미천한 신(臣)이 명을 받고 취임하여 맹추(孟秋 : 음력 七月)에 이 일을 착

수하여 삼개월만에 준공하니 길이는 십오장(丈)이요, 폭은 네장이며, 높이는 삼장이고, 갑문(閘門 : 다리 구멍)이 다섯개이다. 임금께서도 이 일을 아시고는 감독하는 사람과 공장(工匠)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리고 특별히 「만안교(萬安橋)」란 이름도 내리셨다. 신(臣)이 생각컨데 왕자가 다리로 편안히 건너게 된 것은 한(漢)나라의 장안교(長安橋)에서 비롯하였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도강(徒杠 : 徒步로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과 여량(輿梁 : 수레로 건너야 할 큰 다리)은 성주(成周 : 西周)때에 이루어졌으나 돌로 만들어 만세에 전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이 다리는 다행히도 화성(華城) 연로에 있으니 성가(聖駕 : 임금어 탄 수레)는 1년에 한번, 자가(慈駕)는 10년에 한번씩 육룡(六龍)에 멩에를 매이고 팔란(八鑾 : 방울)을 울리면서 편안히 지나갔다가 편안히 오기를 만만년을 한결같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편의는 만백성에게까지 미쳐 원근의 짐꾸러미들이 튼튼한 다리로 건너게 되어 이제는 옷을 걸어 올리거나 험한길로 돌아서 갈 걱정이 없어졌다. 이로써 만만년토록 성은(聖恩)을 입게 되고 자덕(慈德)을 기리게 되었으니 어찌 참으로 성(盛)한 일이 아니겠는가? 공사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하천가에서 돌을 채벌하는데 과연 돌이 나와 경비를 반감(半減)할 수 있어 마치 신이 도운 것 같았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신(臣)은 배수계수(拜手稽首)하고 그 일을 기록한다. 송(頌)은 다음과 같다.

왕께서는 해마다 한번씩 원침(園寢)에 행행(幸行)하시오니 이 다리 건너시길 만번을 하시옵소서,

복록과 함께 이르게 되리니 아래에는 내〔川〕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가(慈駕)를 모시고 만년동안 만안(萬安)하소서,

은혜가 백성에 미치니 마음놓고 건넌에 환성을 올리도다.

천년 만년 편안하기 반석과 같도다.

정헌대부 지중추부사 겸경기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수원부유수 개성
부유수 강화부유수 광주부유수 도순찰사 규장각검교직제학(正憲大夫
知中秋府事 兼京畿觀察使 兵馬水軍節度使 水原府留守 開城府留守 江
華府留守 廣州府留守 都巡察使 奎章閣檢校直提學)

신(臣) 서유방(徐有防) 삼가 지음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 戶曹
參判 兼同知義禁府事 五衛都總府副總管)

신(臣) 조유흥(曹允亨) 삼가 씀

학(學) 신(臣) 유한지(兪漢芝) 전면(前面) 삼가 씀

감동(監董) 첨사(僉使) 김천보(金天寶)

오위장(五衛將) 장정(張挺)

오위장(五衛將) 김대연(金大衍)

오위장(五衛將) 김원섭(金元燮)

영패(營裨) 가선(嘉善) 서협수(徐挾修)

영교(營校) 가선(嘉善) 서의린(徐毅麟)

영사(營吏) 이효석(李孝錫)

각수변(刻手邊) 이삼흥(李三興)

석수변수(石手邊首) 최귀득(崔貴得) 박복돌(朴福乞)

홍예변(虹霓邊) 최흥서(崔興瑞)

야장변수(冶匠邊手) 정일성(鄭一成)

상지(上之 : 正祖) 十九년 九月 일 세움

2) 신도비 (神道碑)

박서 신도비(朴遜神道碑)



- 소재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산168번지
- 연대 : 승정기원후 38년 (1665년)
- 규모 : 총고 314cm, 고 236cm, 폭 98cm, 두께 32cm
- 전자 : 조석윤
- 서자 : 송준길
- 전액 : 김수항

【碑文】

有明朝鮮國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 贈諡 朴公神道碑銘
并序

嘉善大夫吏曹參判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

經筵春秋館事 世子右副賓客趙錫胤 撰

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 兼成均館祭酒 宋浚吉 書

資憲大夫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同知

經筵事金壽恒 篆

士常患懷抱利器而不遇時不得施於世既遇其時矣天不假之年不克究其施焉則
詎不爲千古之恨也歟玄溪朴公爲大司馬三載□睿眷日隆將大用矣一日以疾卒
于官

上既震悼朝之大夫士下至輿臺里巷莫不歡惜垂涕嗚乎痛哉公葬之既踰年公
之季將樹石于公墓馳書二千里請余顯_○文嗚呼余豈忍銘公哉且余時待罪邊
郡辭

不敢既還 朝請益固又豈忍不_○以負存均之托也公諱筵字尚之玄溪其號也自幼
穎秀不羣早孤受業於伯氏甫成童才思驟進能作律詩輒有驚人語游學諸長者門
下

白沙李相公亟稱之期以遠到至有托孤之語年二十三中甲子司馬丁卯授禁火司
別坐旋移金吾郎蓋掌銓者李公而薦用也曆繕工宗簿

宗廟直長登庚午文科選隸承

文院時將有薦入藝文館之議而以仕滿陞拜成均館典籍遷戶兵二曹佐郎司諫阮
正言司憲府持平兼知製 教癸酉爲親養出監忠原縣

縣實大州也介湖嶺之間物衆俗

悍素號難治公泣任未一朞治績大著人蓋知公有劑劇之_㉔翌年以持平 召還錄入玉堂爲修撰校理屢拜正言持平丙子體府辟爲從事

一日登筵 上問諸路兵糧於

體察副使李聖求李公不能對公進對甚悉 上嘉之冬出按湖西軍務未竣事敵兵猝至 大駕幸南漢公卽進駐境上爲諸將援監司鄭世

規兵_㉕李義培皆遇敵潰敗公將

收合散亡爲更舉計而和事以成矣復 命又拜校理修撰禮曹正郎遷司憲府掌令無何出爲順天府使_㉖ 鞫訟理政化大行一境歌頌已卯

遭憂去官民皆號泣拜送如失父

母於是邑之士民及水陸軍兵以至緇徒各自立石頌德其遺愛可知凡公之所莅去後思皆如此服關連拜修撰教理應教皆病不就俄陞執

義時 昭顯世子在藩中宮僚任

旣重人且憚行以公爲侍講院輔德周公周旋保護不避險艱又能飭操端潔上下皆敬憚_㉗ 癸未遞還拜司諫太僕正先是廟堂選儒臣之有才

略可堪將師者公實與焉_㉘是擢

拜黃海道觀察使西路自經禍亂_㉙ 役雲興民不堪命公至則約己裕財隨宜策應不以徭賦責民民力大舒公如_㉚ 蓋遠近稱頌以爲前

後_㉛ 是任者莫能及 朝廷嘉之

瓜滿又 命仍任以病辭遞屢拜兵曹參議參知戶曹參議入銀臺序陞至右承旨乙酉拜江原道觀察使未赴移授關西陞嘉善皆蓋廟堂重

西門難其人也其治如在海西時

踰年病遞丁亥拜兵曹參判奉使赴燕還 朝拜都承旨戊子屢拜兩司長官或爲漢城府左尹兼帶同知義禁副摠管會大司諫林堧等上劄

言事 上以劄辭引喻失當 命

改入公在憲府謂 命改諫劄實 君上過舉喉舌之臣不宜暗無一言遂劾之大忤 上

旨遞職翌日 特命除慶州府尹己丑會葬 山陵
歸途疾作仍遞罷其冬叙拜副摠
管庚寅歷拜工兵二曹參判都承旨再長憲府兼 經筵春秋館備局提調自是在備局
常多 上知公才局可擢用 特除工曹判書明年春
拜議政府右參贊再赴燕復 命
拜禮曹判書仍兼 經筵摠管知義禁會連值 大行耐廟 世子加冠大禮贊引中禮 命
賜廐馬移拜大司憲無何拜兵曹判書兼 內局
宗簿太僕典牲等寺堤調公既受
睿知膺本兵重任益自 殫勵奉職銓注武士必以其人不用一毫私意請托不行門無
雜塵輿誦翕然不得者不敢怨塞竇祿冗費用大省未
及募軍儲充美公嘗建請整頓流
民換定水陸軍數件事 朝議不一寢不行公不欲久在銓地每連章懇辭 上輒溫諭不
許嘗謂 筵臣李厚源曰兵判雖有病本兵太僕方
有更張之事不可徑遞卿其傳諭
予意 上之眷注如此癸巳屢 上候違豫公侍藥踰月憂勞加瘁既而呈告在家患病猝
劇遂不起即六月二十八日也訃 聞 上遣掖庭
人問疾病之由又問何以治喪仍
下教曰判書朴 遼爲國盡職勇不顧身竭誠焦思事有成就子嘗嘉其忠將欲委任而
展布其大志也不幸年未老而死甚痛悼也意朴
嘗憂予之疾豈料予反悲痛於朴
耶其特賜棺材喪需將 塋 筵臣請給擔喪造墓之人且白家無衣食待朋友相禮始
克殮 上爲之嗟歎遂 命優賜人夫曰豈可盡心國
事之人死不得安厝嗚呼終始哀
榮可謂至矣公資性英達器度深遠長於政事謀慮說施鑿鑿中 窺人不可及其治劇
邑雄藩廳察如神剖斷如流故吏畏民懷治常爲最廉潔

過人居官不犯絲毫兩西素號脂
 膏處之泊然如水故老皆稱耳目所未聞覩奉使之時所贈金弊悉散之從者不以自
 逸太僕例收廢牧場所種木花分入私門公爲提調卽革
 之人或疑其異衆公不爲撓公之
 先祖多以清名著世夷請公嘗受 御筆清白傳家四字若公可謂不墜家聲者矣公尤
 篤於內行十歲而孤食素如成人侍大夫人疾累月不
 解帶臨均與其季俱斫指以進永
 感之後不赴人壽席友愛深玉衣食與同教養諸姪不異已出敦睦親族曲盡恩意不
 喜交游於其所契許信義甚篤性愛酒客至必說杯勺
 談咲衍衍懷坦然無表襮 以此
 人皆愛而慕之公常感激 知遇平居不問家人生產惟孜孜於 國事使公而壽考必將
 大利益於斯世而遽爾不淑嗚呼豈非天也公生於
 萬曆壬寅卒之日年五十二公之
 先密陽人也自三韓爲大姓高麗閭門祇侯璵是十一世祖也自是世有聞人高祖諱
 說官左贊成諡夷靖無子以兄雲峯縣監誌之子世貞爲
 后仕爲平市直長 贈司僕正又
 無子以兄將仕郎希貞之子顯爲後文科長湍府使 贈左承旨是生兵曹佐郎 贈吏曹
 參判諱孝男卽公之考也自布衣尙氣義嘗率太學
 生百餘人訟松江鄭相公誣枉士
 論讎之然竟坐此官不達抱才而歿爲世所惜自僕正三代追榮以公貴也前夫人郡
 守金泮之女生一男曰鐘爲時才臣不幸早世後夫人延
 日鄭氏弘文典翰彥浩之曾孫女
 秉節校尉希遜之女婦德母儀皆可爲閨壺則教諸子嚴正有法度常以母添爾清白
 家世爲戒生二女三男公其長也公初娶別坐南陽洪汝
 弼之女後娶府使坡平尹瀆之女

皆早均無子子弟邁之子時瑋娶參判趙錫胤女生一女幼側室有一子曰時珉幼二夫人皆葬原州蓀谷里葬公於衿川縣南丁向之原蓋將

遷祔二夫人云銘曰

英英朴公識達器闕 夙揚雲路克世家聲 歷試外內左右俱宜 盤錯別利冰玉不經 聖繼初載 眷遇彌隆 久授本

兵嘉乃之忠 惟公惟明是有與

誦 庶幾夙夜究厥大用 既既之才而闕其年 嗚呼朴公奈何乎天 黔陽之原有寶其 隧 我銘不刊永詔來裔 崇禎紀元之後三十八年乙巳二月 日立

【翻譯文】

유명조선국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사 증시 박공 신도 비명 병서(有明朝鮮國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 贈諡 朴公神道碑銘并序)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수(守)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 성균관사(知成均館事) 동지경연(同知經筵) 춘추관사 세자우빈객(世子右副賓客) 조석운(趙錫胤)은 글을 짓고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좌참찬 겸 성균관 제주(成均館祭酒) 송준길(宋浚吉)은 글을 쓰고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춘추관(知春秋館) 성균관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김수항(金壽恒)은 전액(篆額)을 하다.

선비는 항상 유용한 재기(才器)를 안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세상에 베풀지 못함을 걱정하게 되는데 정작 때를 만났으나 하늘이 수명을 빌려주지 않아 그 베품을 끝까지 다할 수 없었다면 어찌 천고(千古)의 한이 되지 않

을 수 있으라! 현계(玄溪) 박공(朴公)이 대사마(大司馬 : 병조판서의 별칭)로 있는 지 삼년 동안 권우(眷遇)가 날로 높아 앞으로 크게 쓰이게 되리라고 여겼는데 어느날 병으로 갑자기 관소(官所)에서 졸하니 상께서 진도(震悼)하셨고 조정의 대부(大夫) 사(士)에서 아래로 여대(輿臺 : 下人) 이항(里巷)에 이르기까지 차탄(嗟歎)하고 눈물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아! 슬프도야 공의 장례가 끝난 이듬해 공의 계씨(季氏)가 공의 묘소에 비를 세우려고二천리 길에 글을 보내서 나에게 현각(顯刻)할 글을 청하였다. 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공묘(公墓)에 명(銘)을 하겠는가! 더구나 그때 나는 변군(邊郡)을 맞고 있을 때라서 감히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는데 조정으로 돌아오니 더욱 굳이 청하였다. 이에 어찌 차마 명(銘)을 하지 않고 생사의 부탁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공의 휘(諱)는 서(濼)요, 자(字)는 상지(尙之)이며 현계(玄溪)는 그 호이다. 어려서부터 영이(穎異)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백씨(伯氏)에게서 글을 배웠다. 겨우 성동(成童 : 一五세를 말함)할 때 되어 재사(才思)가 갑자기 진취하여 능히 율시(律時)를 지었는데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이 많았다. 여러 장자(長者 : 큰 선비의 뜻)의 문하에서 글을 익히니 백사(白沙 : 李恒福의 號) 이상공(李相公)이 자주 칭찬하고 원대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여 심지어 자식을 맡길 만하다는 말까지 있었다.

나이二三세인 갑자년(甲子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금화사 별제(禁火司別提)가 되었고 금포랑(金吾郎 : 의금부 도사의 별칭)으로 옮겼는데 전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공(李公)이기에 천용(薦用)한 것이다. 선공감(繕工監)과 종부시(宗簿寺) 종묘서(宗廟暑)의 직장(直長)을 거쳐 경오년(庚午年 : 一六三〇, 인조 八) 문과에 올라 승문원(承文院)에 예속되었는데, 이때 예문관에 천거하자는 말이 있었으나 임기가 찼기 때문에 성균관 전적(典籍)에 올랐다. 호조와 병조의 좌랑,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

평 겸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계유년(癸酉年)에는 아버지의 봉양을 위하여 충주현(忠州縣)을 맡아 나왔는데 충주현은 실은 큰 고을이고 호서(湖西)와 영남(嶺南)의 중간에 끼어 있어 사람도 많고 풍속도 고약하여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러나 공이 부임한 지 한년이 채 못되어 치적(治績)이 크게 나타나 사람들이 공에게 사나운 것을 조제(調劑)하는 재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듬해 지평으로 소환되어 홍문록(弘文錄)에 올라 수찬과 교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정언과 지평에 제배(除拜 : 임명) 되었으며 병자년(丙子年 : 一六三六, 인조 一四)에는 체찰부(體察府)에서 천거하여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는데, 하루는 연중(筵中)에 오르자 상께서 체찰부사(體察副使) 이성구(李聖求)에게 제로(諸路)의 병량(兵糧)에 대하여 물으니 이공(李公)이 대답을 못하자 공이 나서서 극히 상세하게 대답하니 임금의 기색이 이상하게 여겼다. 겨울에는 호서를 안찰하게 되었는데 군무(軍務)를 정돈하기도 전에 적병이 갑자기 닥쳐 대가(大駕)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공은 즉시 경상(境上)에 진주하여 제장(諸將)의 후원이 되었는데 감사(監司) 정세규(鄭世規)와 병사 이의배(李義培)가 모두 적을 만나 궤패(潰敗)하니 공이 산병(散兵)을 규합하여 재기할 계획을 세웠으나 강화(講和)가 이루어져 버렸다. 복명하자 다시 교리에 제배되어 수찬과 예조정랑을 거쳐 사헌부 장령으로 옮겼고 오래지 않아 순천부사(順天府使)로 나갔는데 요부(徭賦)는 가볍고 송사(訟事)는 잘 다스려지니 정화(政化)가 크게 행하여 일경(一境)에서 구가(謳歌)하였다.

기묘년(己卯年) 상(喪)을 다하여 벼슬을 버리니 백성들이 모두 호읍(號泣)하고 배송(拜送)하기를 마치 부모를 잃은 듯 하였는데 결국에는 고을의 사민(士民)과 수륙(水陸)의 군병에서부터 승려(僧侶)에 이르기까지 각자 돈을 세워 공의 덕을 칭송하였으니 그 유애(遺愛 : 예사람과 같은 자애로

움을 알만하였는데 공이 부임하였던 모든 곳에서 떠난 뒤의 사모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상을 마치자 연이어 수찬과 교리, 응교에서 제배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얼마 후에는 집의로 올랐다. 그때 소현세자(昭顯世子 : 인조의 세자가 심양(瀋陽 : 奉天)에 있었는데 궁료(宮僚)는 소임이 중하였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여 공으로 시장원 보덕(侍講院輔德)을 삼았다. 공이 이르자 주선하고 보호함에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또 능히 조행(操行)을 단결(端潔)하게 간직하니 위 아래에서 모두 존경하고 어려워 하였다.

계미년(癸未年 : 一六四三, 인조 二一)에 체직하고 돌아오니 대사간에 제배되었다가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옮겼다. 이에 앞서 묘당(廟堂)에서 유신(儒臣)으로 재략(才略)이 있어 장임(將任)을 감내할 만한 사람을 가려 공이 포함될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황해도 관찰사 탁배(擢拜)되었다. 서로(西路)는 병란을 겪은 뒤로 요역(徭役)이 구름처럼 일어나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으나 공이 부임하여서는 자봉(自奉)을 절약하여 재물을 넉넉하게 하고 편의에 따라 책응(策應)은 하되 요부(徭賦)로 백성을 핍박하지 아니하니 백성의 힘이 크게 퍼져 ~六字缺~ 원근에서 칭송하기를 『전후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칠 수 없다』고 하였고 조정에서도 가상히 여겨 임기가 다하자 다시 잉임(仍任 : 연임)을 명하였으나 병으로 사체(辭遞)하였다. 여러차례 병조참의와 참지(參知), 호조참의를 배수하고 은대(銀臺 : 승정원의 별칭)에 들어와 순차로 올라 우승지에 이르렀고 을유년(乙酉年)에는 강원도관찰사에 제배되어 미처 부임하기도 전에 관서(關西)로 이배(移拜)되었고 가선(嘉善)에 올랐는데 대체로 묘당에서 서쪽 문호(門戶)를 중히 여겼으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관서를 다스리기를 해서(海西)에 있었을 때와 같이 하고 해가 지나서 병으로 체직(遞職)하였으며 정해년(丁亥年)에는 병조참관에 제배되었다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는 도승지에 제수(除授)되었다.

무자년(戊子年)에는 여러번 양사(兩司)의 장관을 배수하였고 간혹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이 되어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 副摠管)을 겸대(兼帶)하기도 하였다. 그대 마침 대사간 임담(林潭) 등이 차자(笏子)를 올려 일을 논하였는데 상께서 차자에서 인용하여 비유한 바가 정당성을 잃었다 하여 고쳐서 올리라 하니 공이 사헌부에 있는데, 사간원의 차자를 고쳐서 올리라고 명한 것은 실은 군상(君上)의 잘못인데도 승정원에서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탄핵하여 크게 임금의 뜻을 거슬려 체직되었다. 그러나 이튿날 특명으로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되었고 기축년(己丑年) 산릉(山陵)에 회장(會葬)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이나 그대로 파직되었다. 그대 겨울 서용(敍用)되어 부총관에 제수되었고 경인년(庚寅年 : 一六五〇, 효종 1)에는 공조와 병조의 참판을 거쳐 도승지에 제수되었으며 재차 사헌부의 장이 되어 경연과 춘추관 명 비국(備局 : 비변사의 별칭)의 제주를 겸대하였는데 이로부터는 비국에 있는 일이 항상 많았고 상께서 공의 재국(才局)을 알고 가려 쓸 만하다고 여겨 특별히 공조판서를 제수하였다.

이듬해 봄에는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고 재차 연경(燕京)을 다녀와서 복명하니 예조판서에 제수되었고 경연과 총관(摠管) 및 지의금(知議禁)은 그대로 겸대하였다. 그대 마침 대행왕(大行王 : 승하한 전왕의 廟號)가 내리기 전을 명칭(明稱)의 부묘(肅廟)와 세자의 가관(加冠) 등 큰 예식이 겹쳐 찬인(贊引)으로 예(禮)의 집행이 예제(禮制)에 맞으니 구마(廐馬)를 하사하라 명하고 대사헌에 이배(移拜)되었다가 곧바로 병조판서에 제수되어 내국(內局 : 內醫院의 별칭) 종부시(宗簿寺) 전생서(典牲署) 등의 제주를 겸대하게 되었다. 공은 이미 임금의 지우(知遇)를 받아 본병(本兵 : 병조의

별칭)의 중임(重任)에 응명하였으므로 더욱 성력을 다하여 봉직하였고 무사(武士)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당한 사람으로 하여 일호도 사의(私意)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탁이 용납되지 아니하니 문전에는 잡진(雜塵)이 없었으며 여정(輿情)도 조용하였고 얻지 못한 자로 원망하지 않았다. 부정의 구멍을 막고 잡비를 없애니 경비는 크게 절감되어 한해가 채 못되어 군용이 남아났다.

공은 일찌기 유민(流民)을 정리하여 수륙(水陸)의 군역(軍役)에 환정(換定)하는 안건 등 몇 가지 일을 건청(建請)하였으나 조정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자 오래 전지(銓地)에 있고 싶지 않아 매양 연장(連章)을 올려 간절히 사의를 표하면 상께서는 선뜻 온유(溫諭)만 내리고 윤택하지 않았는데 한번은 연신(筵臣)이후원(李厚源)에게 말하기를『병판이 비록 병이 있으나 병조와 사복시(司僕寺)에는 바야흐로 경장(更張)한 일이 있으므로 쉽게 교체하지 못하겠으니 경이 나의 뜻을 전하오』라고 하였는데 임금의 권유(眷遇)가 이와 같았다.

계사년(癸巳年 一六五三, 효종 四)여름 상께서 위예(遼豫 : 불편함)하여 공이 시약(侍藥)하였는데 달포가 넘게 걱정하고 수고하여 병이 더하게 되자 이윽고 병가를 내고 집에 있었으나 병이 덧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날이 六月 二八일이었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상께서 액정인(掖庭人 : 내시)을 보내서 병의 원인을 물었고 또 어떻게 상(喪)을 치를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으며 이어 하교하기를『판사 박서(朴서)는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고 용감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노심초사(勞心焦思)하여 일에 성취가 있었으므로 내가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앞으로 그를 전임(專任)하여 그 큰 뜻을 펴보게 하려 했는데 불행하게도 나이 많지 않아 죽으니 내가 심히 애도하는 바이다. 생각해보면 박서가 일찌기 나의

병을 걱정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박서의 죽음에 비통해 할 줄 생각이나 했는가?』라고 하고 특별히 관재(棺材)와 상수(喪需)를 내렸다. 장례가 임박하자 연시(筵臣)이 상여를 메고 묘소를 만들고 할 인부를 주기를 청하고 또 집안에 의금(衣衾)도 없어 친구가 수의(襚衣)를 도와 비로서 염(殮)을 할 수 있었다고 사되니 임금이 차탄하고 인부를 넉넉히 주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어떻게 국사에 진심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장(安葬)도 할 수 없게 하겠느냐』고 하였으니 아! 종시의 애영(哀榮)이 가히 지극하다 하겠다.

공은 자성(資性)이 영달(英達)하고 기도(器度)가 심원(深遠)하였는데 정사(政事)에 밝아 계획하고 실시함이 착착 제경우에 맞아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지경이었고 사나운 고을과 큰 도(道)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청찰(聽察)은 귀신처럼하고 결판은 물 흐르듯이 하였기 때문에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사모하여 치적은 항상 제일이었으며 청렴결백하기가 남보다 지나쳐 관직에 있으면서는 추호도 범함이 없었다. 양서(兩西)는 본래 기름진 곳으로 일컬어졌으나 처신(處身)하기를 물같이 담박(澹泊)하게 하니 고로(故老)들이 모두 칭송하기를 눈과 귀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사신으로 다녀왔을 때도 저들한테서 받을 금帛(金帛)을 있는대로 종자(從者)들한테 나누어 주고 스스로 차치하지 않았으며 사복시(司僕寺)에서는 으레히 폐목장(廢牧場)에 심은 목화를 거두어 개인이 나누어 가졌었는데 공이 제주(提調)가 되어서는 즉시 고쳐버리니 사람들은 혹 중인(衆人)과 다르지나 않나 의심하였지만 공은 거기에 개념하지 않았다.

공의 선조에는 청명(淸名)으로 세상에 저명한 이가 많았고 이정공(夷靖公)을 일찌기 어필(御筆)로「청백전가(淸白傳家)」네 글자를 받기도 하였는데 공은 가히 가정(家聲)을 떨어뜨리지 않은 분이라고 하겠다. 공은 내행(內行)에 더욱 독실하여 열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식소(食素: 어육을 먹지 않음)를 어른과 같이 하였고 대부인의 병구완을 할 때에는 여러달동

안 띠를 풀지 않았으며 임종(臨終)에는 계씨(季氏)와 함께 손가락을 깨서 피를 드렸고 돌아가신 뒤에는 남의 수석(壽席)에는 나가지 않았다. 우애가 깊어 좋은 옷과 음식은 함께 하였고 여러 조카를 교양함에 기출(己出)과 다름없이 하였으며 친족간에는 돈목하여 은의(恩意)를 극진히 하였다. 본래 교유(交遊)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사귄 처지에는 신의가 매우 깊었고 술은 즐기어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술상을 보아 즐겁게 담소(談笑)하였는데 흉금(胸襟)이 넓어 겉과 속의 다름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사모하였다. 공은 항상 지우(知遇)에 감격하여 평소에도 집안 식구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라 일에만 부지런하였으니 공으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였다면 틀림없이 이 세상에 도둑됨이 있었으려면만 갑자기 즐하니 아! 어찌 천운이 아니라! 공은 만력(萬曆) 임인년(壬寅年:一六〇二, 선조三五)에 태어나 죽을 때에 나이 五二세였다.

공의 선계(先系)는 밀양인(密陽人)이다. 삼한(三韓)이래로 대성(大姓)으로 내려왔는데 고려(高麗)의 함문지후(閤門祗候) 감(瑊)은 공의 ——세조이다. 이로부터 대대로 저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조 휘 열(說)은 벼슬이 좌찬성이요, 시호는 이정(夷靖)이니 아들이 없어 형 운봉현감(雲峯縣監) 지(誌)의 아들 세정(世貞)으로 뒤를 이었다. 이가 평시서직장(平市署直長)으로 사복정(司僕正)에 증직되었는데 또 아들이 없어 형 장사랑(將仕郎) 희정(希貞)의 아들 응(頤)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는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장단부사(長湍府使)를 지냈으며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이가 병조좌랑을 지낸 중 이조참판 휘 효남(孝男)을 낳으니 바로 공의 고(考)인데 포의(布衣) 때부터 의기(意氣)를 숭상하여 일찌기 태학생(太學生) 백여인을 인솔하고 송강(松江) 정상(鄭相: 정철)의 무왕(誣枉)을 변명하니 사론(士論)이 옳게 여겼다. 그러나 마침내 그 일 때문에 벼슬이 현달하지 못하고 재주를 안고 죽어 세상의 애석해 하는 바가 되었는데 사복정이하 三代

의 추영(追榮)은 공이 귀히 됨으로서 내려진 것이다.

전부인(前夫人)은 군수 김변(金邊)의 따님으로 一남을 낳았으니 추(繼)인데 당시의 재신(才臣)이 되었었으나 불행히 일찍 죽었고 후부인(後夫人) 연일정씨(延日鄭氏)는 홍문전한(弘文典翰) 인호(彦浩)의 증손녀이자 병절교의(秉節校尉) 희준(希浚)의 따님인데 부덕(婦德)과 모의(母儀)가 두루 규방(閨房)의 모범이 될 만하였고 여러 아들을 가르침에 법도가 있어 항상 『너의 칭백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그녀 三남을 낳으니 공이 그 맏이다.

공의 초취(初娶)는 별좌(別坐) 남양(南陽) 홍여필(洪汝弼)의 딸이고 후취(後娶)는 부사(府使) 파평(坡平) 윤양(尹瀆)의 딸인데 모두 조졸(早卒)하여 아들이 없어 아우 구(邁)의 아들 시위(時瑋)를 아들로 삼았다. 시위는 참판 조석윤(趙錫胤)의 딸을 취(娶)하여 一녀를 낳았으나 어리고 측실(側室)에서 一자가 있으니 시민(時珉)이나 아직 어리다. 그 부인은 모두 원주(原州)의 손곡리(蓀谷里)에 장사지냈고 공은 금천현(衿川縣)의 남쪽 계좌원(癸坐原)에 장사지냈는데 앞으로 그 부인을 옮겨 부장(耐葬)할 계획이라 한다.

명(銘)하기를 영명(英明)한 박공(朴公)은 식견도 통달하고 기국도 컸는데, 일찍 청운(靑雲) 길에 드날리고 가성(家聲)을 잘도 이었다네, 내외직 두루 거치고 임금의 좌우도 두루 마땅했는데, 뒤엎힌 별다른 이곳 빙옥(氷玉)처럼 검어지지 않았다네.

성군(聖君)이 계승한 첫 정사에 권우(眷遇)는 더욱 융숭했고,

오래도록 본병(本兵) 맡기니 그대의 충성 가상히 여김이라.

오직 공명정대하여 이에 여송(興訟) 따랐으니, 아마도 조만간에 크게 쓰임 다하리라 여겼는데, 기왕 재주를 주고 그 수명 빼았음이나, 아! 박공이여 천운인걸 어찌 하겠나! 금양(黔陽)의 언덕에 으스스한 묘도(墓道) 있어, 나

의 명(銘) 깎이지 않나니 길이 내예(來齋)에 밝히리로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三八년 을사(乙巳 : 一六六五, 현종 六)二月
일 세움.

3) 묘비(墓碑)

김순묘지(金恂墓誌)



- 소재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74
- 연대 : 대원지원원년(1321) 재건립 1943년
- 규모 : 총고 202cm, 비신 152cm, 폭 59cm, 두께 27cm
- 천자 : 민 지

【碑文】

高麗國貳重大匡上護軍贈諡文英安東金公恂之墓碣銘(篆額)

重大匡判三司事實文閣大提學上護軍金恂 墓碣銘 并序

古所謂君子者德行云乎哉功業云乎哉予曰惟德行耳非功業也何也德行在心功業在時在心者人所修也在時者天所授也能修人之所可修者爲君子耳夫德行本乎忠孝能以忠孝立揚於當世者惟我判三司相君有焉公諱恂字歸厚系出新羅王金傅(十九字缺)公爲金傅十世孫而安東府卽其桑梓之鄉也曾祖諱敏成追封左僕射行掌治暑丞兼直史館祖諱孝印追封中書令行正議大夫兵部尙書翰林學士充史館修撰館知制誥考諱方慶宜授中奉大夫管高麗軍都元帥推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重大匡判都僉議使司典理司事上將軍上洛郡開國公食邑一千戶實封三百戶贈宣忠協謀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忠烈公母朴氏中書舍人知制誥諱益旌之女封陰平郡夫人公以善書多寫碑文年方志學以門蔭入仕爲掌牲暑丞後改爲別將御牽龍行首職雖從東至西 其志未嘗不在文學蓋嚴君雖位極兩朝將相惟以未參桂籍爲恨冀嗣子之能復祖業故也公由力學不倦至至元十六年己卯春場一舉爲金榜副元是年初拜攝郎將後改爲國學直講此公之能伸大人之遺憤者也自是先公益推偏季之恩常令不離左右賀正上國無不令隋但其東征船上不許追陪者不從軍參危事也公於是扈 駕不待命而先登戰艦頗有扶衛教授之功是公惟專忠孝而奮不顧身者也壬午遷殿中侍史翌年出爲尙州判官政聲登聞未一年而入爲典法佐郎 □□通禮門事考功正郎壬戌奉使南方爲陪先公拜祖墓於桑鄉也戊子際秘書少尹知通禮門事是年上命公爲世子府行李別監委以師傅之任壬辰加朝顯大夫典法摠郎知制誥累遷少府尹 □□□ 學軍簿摠郎典理摠郎朝奉大夫秘書尹三司右尹皆兼三字元貞乙未冬同知貢舉所取皆當時名士大開綺席 □□□□ 士朝野莫不嘉歎是先公之極於榮孝者也是年加朝議大夫丙申兼世子舍人大德丁酉遷國學典酒又拜奉烈大夫密直使右副承

旨驟遷左副承旨寶文閣直學士翌年加右承旨知板圖司事每遷皆兼三字是年春奉使南方既還改授通議大夫光政副使承旨成均祭酒又改爲正議大夫集賢殿學士左散騎常侍是年七月復爲密直使右承旨國學祭酒寶文閣學士知民曹事依前三字八月加奉翊大夫三司左使崇文館學士九月又改爲正獻大夫密直司左承旨判秘書寺事充史館修撰官知制誥知軍簿司事十二月拜奉翊大夫密直司副使文翰學士己亥知止乞退翌年八月先公壽世 依遺囑葬于桑梓庚戌冬行祭于先公墓壬子起爲重大匡上洛君承襲先公之茅士己未又拜先公墓上命季子永煦奉使以陪行所以重其行也至治元年辛酉命相以賢擢公爲判三司事八月加寶文閣大提學上護軍至是月二十一日寢疾卒于第享年六十四公性敦厚直柔內實剛毅孝悌忠信出於天眞惜乎以公之才德若延數載則利澤豈不及於蒼生名位豈止如是而已哉娶匡靖大夫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典理司事世子師贈諡文敬公諱許洪之女生四男三女曰永暉今爲都官直郎知陝州事曰永暉今爲興威衛保勝別將曰思順朔度爲慈恩宗大德曰永煦爲司憲持平女一嫡入內侍中正大夫親禦軍大護軍鄭勳二嫡大匡上黨君白暉正三嫡舍人別里哥不花大元左丞相阿忽反之子也永暉等既卜兆于德水縣馬山將葬也以予爲先公親舊具公之行狀乞銘甚切予雖病不忍堅拒受而銘之銘曰

赫赫忠烈 東國汾陽 滿庭蘭玉 并秀爭芳 白眉爲季 時號最郎 家尊所欽 未入桂堂 公承厥志 銳意 文場 世傳祖法 時效錦囊 妙齡乙第 名振四方 揚歷臺閣 寅誥含香 一提文柄 桃李成行 高堂喜淚 流溢壽觴 眼前拜相 錄發金章 力彈榮孝 哀極梓鄉 子道無缺 宜降百祥 暮年閑退 天意茫茫 終傳茅土 文戶更光 不添時政 虛度九霜 俄登極品 民固邦寧 胡未卒歲 遽促仙裝 在公無慊 爲國可傷 刻銘流耀 庶及無疆

大元至治元年辛酉十月十四日

宣授朝烈大夫 翰林直學士 三重大匡 檢校僉議政丞 右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 驪興君 閔漬 撰

【 翻譯文 】

고려국이중대광상호군증시문영안동김공순지묘갈명(전액)

중대광판삼사보문대제학 상호군 김순묘갈명병서

옛적에 이르기를 군자(君子)라고 하는 것은 덕행(德行)을 두고 말한 것이냐? 공업(功業)을 두고 말한 것이냐 하면 오직 덕행이요. 공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덕행은 마음에 있는 것이요 공업은 때(時機)에 있는 것이니 마음에 있는 것은 사람이 수양할 수 있는 것이요 때에있는 것은 하늘이 주는 바이니 사람이 수양할 수 있는 것을 수양하는 것이 군자이다. 무릇 덕행은 충효가 근본이 되므로 능히 충효(忠孝)로써 당세(當世)에 입신양명 한 분은 오직 우리 판삼사 상군(判三司 相君)이 계실 뿐이다. 공(公)의 휘(諱)는 순(恂)이요. 자(字)는 귀후(歸厚)며 신라왕 김부(新羅王 金傅)의 십세손(十世孫)으로 태어나시니 안동부(安東府)는 즉 그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고향이다. 증조의 휘(諱)는 민성(敏成)이시니 좌복야(左僕射)로 추봉(追封)되고 장야서승 겸 지사관(掌冶暑丞兼直史館)을 지냈으며 조(祖)의 휘(諱)는 효인(孝印)이시니 중서령(中書令)으로 추봉(追封)되시어 정의대부 병부상서 한림학사 충사관수찬관 지제고(正議大夫兵部尙書 翰林學士 充史館修撰官 知制誥)를 지내시고 고(考)의 휘(諱)는 방경(方慶)이시니 원제(元帝)로부터 중봉대부 관 고려군 도원수(中奉大夫 管史高麗軍 都元帥) 추충 정난 정원공신 광정대부 삼중대광 판도침의사사 전리사사 상장군 상락군개국공(推忠 靖難 定遠功臣 匡靖大夫 三重大匡 判都僉議使司 典理司事 上將軍 上洛郡開國公) 식읍 일천호(食邑 一千戶)를 선수(宣授)하니 실봉(實封)은 삼백호(三百戶)이며 돌아가신 후에 고려(高麗)에서 선충 협모 정난 정국공신 벽상삼한 삼중대광(宣忠協謀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을 증직(贈職)하고 시호(諡號)

(除授)하더니 그해에 왕이 공(公)을 명하여 세자부 행이별감(世子府 行李別監)을 삼고 사부(師傅)의 책임을 위촉(委囑)하였으며 임진년(任辰年)에 조현대부 전법총랑 제제고(朝顯大夫 典法摠郎 知制誥)를 첨가 위임하더니 누차 승진되어 소부윤□□□학 군부총랑 전리총랑 조봉대부 비서윤 삼사우윤(少府尹□□□學 軍簿摠郎 典理摠郎 朝奉大夫 秘書尹 三司右尹)에 모두 삼자함(三字銜 : 봉조하(奉朝賀)·종삼품이 치사후에 특별히 받은 직위)을 겸하였다. 원정 을미년(元貞乙未年) 겨울에 과거(科擧)로 선발된 동지들은 모두 당시의 명사(名士)들이라 크게 화려한 연석(宴席)을 베풀으니 □□□사(士) 조야(朝野)가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는 선친에 대한 극진한 영광(榮光)이요 효도인 것이다. 이해에 조의대부(朝議大夫)로 올라가고 병신년(丙申年)에 세자사인(世子舍人)을 겸하고 대덕 정유년(大德丁酉年)에 국학전주(國學典酒)로 승진되고 또 봉열대부 밀직자 좌부승지(奉烈大夫 密直使 左副丞旨)로 천거 되었더니 별안간 좌부승지 보문각 직학사(坐副丞旨 寶文閣直學士)로 승진되고 그 이듬해에 우승지 지판도사사(右丞旨 知判圖司事)를 더하고 매양 옮길 때마다 모두 삼자(삼자)를 겸하였다. 이에 봄에 남방으로 사신갔다 돌아와서 다시 통의대부 광정부사 승지 성균제주(痛議大夫 光政副使 丞旨 成均祭酒)로 임명하고 또다시 정중대부 집현전학사 좌산기상시(正議大夫 左散筓常侍)를 배명하였다. 이해 七월에 다시 밀직사 우승지 국학제주 보문각학사 지민조사(密直使 右承旨 國學祭酒 寶文閣學士 知民曹事)로 배명(拜命)하고 三자(字)는 전대로 두었다. 八월에 봉익대부 삼사좌사 승문관학사(奉翊大夫 三司左使 崇文館學士)로 승진되고 九월에 또 다시 정현대부 밀직사 좌승지 판비서시사 충사관 수찬관 지제고 지군부사시(正獻大夫 密直使 左承旨 判秘書寺事 充史館 修撰官 知制誥 知軍簿司寺)가 되고 十二월에 봉익대부 밀직사부사 문헌학사(奉

翊大夫 密直史副使 文翰學士)를 배명(拜命)하였다. 기해년(己亥年)에 공께서 그칠줄을 아시고 벼슬을 사퇴하셨다. 그 이듬해 팔월에 선친께서 세상을 하직하십시오 유원(遺願)에 의하여 고향 선영(先塋)에 장례를 모셨다. 경술년(庚戌年) 겨울에 선친 산소에 제사를 지내고 임자년(任子年)에 다시 중대광 상락군(重大匡 上洛君)을 봉하여 선친의 작위(爵位)와 식읍(食邑)을 이어 받았다. 기미년(己未年)에 또 선친 산소에 성묘차 가시는데 왕께서 계자 영후(季子 永煦)를 시켜 모시고 배행(陪行)케 하였으니 왕께서도 공의 행차를 극진히 배려한 때문이다. 지치원년(至治元年 : 一三二一)신유(辛酉)에 어진 정승(政丞)을 기용하기 위하여 공을 발탁하여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고 팔월에 또 보문각 대제학 상호군(寶文閣 大堤學 上護軍)을 명하였다. 그달 이십일일에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시니 향년 육십사세이다. 공은 성품이 돈후(敦厚)하고 강직(剛直)하고 내유(內柔)하시며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은 천하에 출중(出衆)하였다. 아깝도다! 공의 재덕(才德)으로 만일 몇해만 더 사셨더라면 국가의 이익과 혜택이 어찌 만민(萬民)에 미치지 않았으며 명예와 지위도 어찌 이에서 그칠뿐이라? 배(配)는 광정대부 첨의 중찬 수문전태학사 감수국사 판전리사사 세자사 증시 문경공(匡靖大夫 僉議 中贊 修文殿太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 世子師 贈諡 文敬公) 휘(諱) 허공(許珙)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사남삼녀를 낳으셨는데 장남 영돈(永暉)은 현재 도관직랑 지함주사(都官直郎 知陝州事)로 있고 이남 영휘(永暉)는 현재 흥위위 보승별장(興威衛 保勝別將)으로 있고 삼남 사순(斯順)은 삭발하고 중이 되어 자혜종 대덕(玆惠宗 大德)이 되었고 사남 영후(永煦)는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으로 있었다. 장녀는 입내시 중정대부 친어군대호군(入內侍 中正大夫 親禦軍大護軍) 정책(鄭愼)에게로 출가하고 이녀는 대광 상당군(大匡 上黨君) 백이정(白顛正)에게로 출가하고 삼녀는 원나라 좌

승상(左丞相) 아홀반(阿忽反)의 아들인 사인(舍人) 별리가불화(別里哥不花)에게로 출가하였다.

영돈(永墩)의 문중에서 이미 장지를 덕수현 마산(德水縣 馬山)위에 잡아 놓고 장차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나는 그의 선친의 친구인지라 공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명(銘)을 지어달라고 간청함으로 내가 비록 병들었으나 굳이 사양치 못하고 받아서 명(銘)을 쓰노라. 명문(銘文)에 이르기를

赫赫(赫赫)한 충렬은 동국(東國)의 황제의 양위(讓位)와 같고 (汾陽이란 황제의 양위요 임금의 분양에서 선인과 나서 황제의 자리를 물려 주었다는 고사에서 나온말) 만당(滿堂)한 자질(子姪)들은 모두가 수재요 영재로서 백미(百眉 : 여럿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故】옛날 촉(蜀)나라마 씨 집안 오형제중 눈썹이 하얀 馬良이가 제일 뛰어났던데서 유래한 말)와 같이 우수하니 당시에 이르기를 제일 어질다고 하였도다. 선친의 유한(遺寒)은 과거(科擧)에 급제하지 못함이더니 공이 그 뜻을 이어 문학에 뜻을 예민(銳敏)하게 세우고 대대로 전해오는 조상의 법도를 본받아 시시(時時)로 금낭(錦囊 : 시 작품을 넣은 비단주머니)이 찰만큼 시 짓기에 노력하더니 묘령(妙齡) 이십이세에 금방(金榜)에 급제하여 이름을 사방에 떨치니 대각(臺閣)에서 전파(傳播)하는 고시문(告示文)은 향기가 돌았도다. 함번 학문(學問)의 권세를 잡으니 형제가 열(列)을 이루도다. 존당(尊堂)의 기쁜 눈물은 흘러 축하하는 술잔에 넘치고 생전에 정승을 지내어 검은 구렛나루에 금장(金章)이 빛나도다. 힘껏 영화(榮華)와 효도를 다하여 고향 사람들이 애달파 하노라. 자식된 도리를 다하니 만복이 내리도다. 만년(晩年)에 은퇴(隱退)하매 하느님의 뜻이 담담(淡淡)하도다. 마침내 선군(先君)의 작록(爵祿)을 습봉(襲封)하니 문호(門戶)가 다시 빛이 나도다. 정계에 참여치 않고 은퇴 후에 구년간의 세월을 허송

(虛送)하다가 별안간 극품재상(極品宰相)에 올랐으니 민생(民生)도 안정되고 나라도 태평하도다. 아직 돌아가실 나이도 아니신데 급작스럽게 황천(黃泉)길을 재촉하니 공에게 있어서는 여한(餘恨)이 없겠으나 나라를 위해서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명(銘)을 새기니 광채는 천만년에 끝이 없으시리라.

대원 지원(大元至元) 원년(元年) 신유(辛酉) 十月 十四日

선수 조열대부 한림직학사 삼중대광 검교 청의정승 우문관 대제학 감춘추관사(宣授 朝烈大夫 翰林直學士 三重大匡 檢校 僉議政丞 右文館 大提學 監春秋館事) 여흥군 민지(驪興君 閔漬) 지음(撰)

류정현묘갈(柳廷顯墓碣)

一兩惟公家四班五公莫有與之京者以
 公陞章敬公墩皆赫駟蟬聯與禪而氣
 貫流遠地哉 太宗丙申入中書至上相
 酌以脩之公惶懼辭謝不得 世宗即位
 欽使征島倭大捷立中外久任之制在相
 盟哭于金川橋聲徹于外有司厄具一視
 敬夫人鄭氏西原伯類女繼配和敬宅主
 後也公之墓中更燹革失其傳遺裔力承
 之淚也麗牲之具且彫減不可讀一於世
 於進士雅有文字之契不可以泯其
 詩無一敗亂無一害治文綏武定禮明

- 소재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59-1
- 연대 : 송정기원후 오갑자 (1864년)
- 규모 : 총고 190cm, 비고 147cm, 폭 56cm, 두께 24cm
- 천자 : 조두순
- 서자 : 신관호

【碑文】

公諱延顯字汝明月亭其號也文化之柳靡不以大丞車達爲鼻祖而惟公家四世五公莫有與之京者政堂文學公權有清直名詩若筆俱入海東雋選若大提學澤文正公璈貞慎公階章敬公墩皆赫綉蟬聯血禪而氣授焉有諱鎮爵文化君生四男公其第三也在勝國恭讓時與禹相國玄寶流遠地我太宗丙申入中書上相上嘗曲嚙賜一皮曰卿之壽宜此皮韌且長若也仍以御飲玉盃酌以侑之公惶懼辭謝不得世宗即位上王諱曰陵園之置佛寺非古也予欲自我作法公力贊之是年以都統使征烏委大建立中外久任之制在相位凡十一年以宣德丙午五月十五日卒享年七十又二上聞訃震悼望哭于金川橋聲撒于外有可庇具一視柳相公寬之喪謚貞肅墓在果川冠嶽南麓後人名其洞爲領議政隅配貞敬夫人鄭氏西原伯執女繼配和敬宅主李氏葬楊州雪裏洞同岡子顯文觀察使令分居兩湖者皆觀察後也公之墓中更蹙革失其傳遺裔力救之有驗遂葬高平正廟命監務淨其兆域遣官宣佈錄其後當墓之泯也麗牲之具墜滅不可讀十六世孫湖南進士燾抱公遺事而言曰公職太史於遺文墜簡宜有意焉余於進士雅有文字之契不可以孤其孝銘曰有國勝際有良有碩有勳有業不如無跡公相兩聖嗚呼其時無一敗亂無一害治文治武定禮明樂備曷云徵之載獻載史隊夷復隆裔熾而繁維茲顯刻永詔母綏崇禎紀元後五甲子二月日立十五世孫武科基榮十六世孫進士燾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春秋館弘文館成均館觀象監事原任奎章閣堤學楊州趙斗淳撰資憲大夫工曹判書兼同和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總管平山申觀浩書

【翻譯文】

공의 휘는 정현(廷顯)이요, 자는 여명(汝明)이요, 월정(月亭)은 그 호이다. 문화류씨는(文化柳氏)는 대승 차달(大丞 : 車達)을 모두 시조(始祖)로 하는 바, 오직 공의 가문에 사세오공(四世五公)은 함께 견줄 자가 없

으니 정당문 학 공권(政堂文學 公權) 은 청렴 정직한 명망이 있었고 시(詩)와 필적(筆蹟)이 해동준선(海東雋選)에 모두 들어 있으며, 대제학택(大堤學 澤)과 문정공 경(文正公 瓌)과 정신공 승(貞愼公 陟)과 장경공 돈(章敬公 墩)과 같은 분은 모두 대(代)를 이어 관작(官爵)과 명성(名聲)이 빛났었다. 휘 진(鎭)이 계시어 문화군(文化君)에 봉작(封爵)되고 사남(四男)을 출생하였는데 공은 그 셋째 아들이다. 공께서 고려(高麗) 공양왕(共讓王)때에 우상국현보(禹相國玄寶)로 더불어 먼 지방으로 유배(流配) 되었다가 우리 조선(朝鮮) 태종(太宗) 병신(丙申 : 一四一六)에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에 이르렀다.

주상(主上)께서 일찌기 곡연(曲讎: 내연)에서 가죽 한장을 하사(下賜) 하시며 이르시기를 「 경(卿)의 수명이 가죽과 같이 질기고 길기를 바란다. 」하시고, 임금이 마시는 옥배(玉盃)로 술을 권하시니 공이 황송하여 사양하다가 마침내 사양치 못하고 받아 마시었다.

세종(世宗)께서 즉위(卽位) 하심에 이르러 상왕(上王 : 太宗)께서 말씀하시기를 「 능원(陵園)에 불사(佛寺)를 설치함은 옛 도리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법(法)을 짓고자 하는 바, 공은 힘써 도와달라. 」하시었다. 이 해를 도통사(都統使)로써 왜적(倭賊)을 정벌하여 크게 승리하고 내외(內外)의 직책에 오래 맡기는 제도(制度)를 세웠다.

정승(政丞)의 지위 있기 무릇 십일년(十一年) 만인 선덕(宣德) 병오(丙午 : 一四二六) 오월십오일에 졸(卒)하니 향년(享年) 칠십이세였다. 주상께서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심히 슬퍼하시니 금천교(金川橋)까지 낚시어 망곡(望哭) 하셨는데 그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한편 유사(有司)로 하여금 장제(葬祭)의 갖춤을 한결 유상공 관(柳相公 寬)의 상(喪) 때와 같이 하였다. 시호(諡號)는 정숙(貞肅)이다.

묘소는 과천 관악산 남독(果川 冠嶽山 南麓)에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동리(洞里)를 「 영의정골모퉁이」라 불렀다. 배위(配位) 정경부인 정씨(貞敬夫人 鄭氏)는 서원백 오(西原伯 頰)의 따님이요, 계배(繼配)는 화경택주 이씨(和敬宅主 李氏)인데, 양주 설리동(楊州雪裏洞) 동강(同岡)에 장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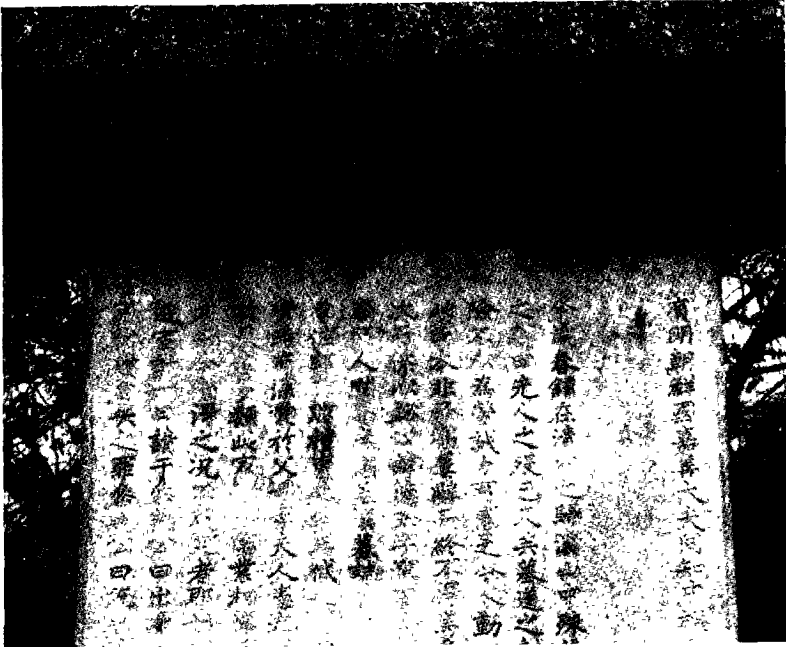
아들 의(顛)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참판이요, 장(障)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찰사(觀察使)인데, 지금 양호(兩湖：湖西·湖南)에 분거(分居)하는 이들은 모두 관찰사의 후손이다. 공의 묘소가 중간에 난리를 격어 그 전(傳)함을 잃었더니 후손들이 힘써 찾아 증험이 있었던바, 드디어 정조(正祖)에게 아뢰었는데, 정조께서 감무(監務)에게 명하여 그 묘역을 정화하고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한편 그 후손을 찾아 관직을 내리셨다.

묘소를 실전(失傳)함에 당하여 비석에 새겨진 글이 다 이즈러져 가히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십육세손(十六世孫)으로 호남(湖南)에 사는 진사도(進士 燾)가 공의 유사(遺事)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공께서 태사(太史)의 직책을 지냈으니 남은 글과 떨어진 책이라도 마땅히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내가 진사와는 본래 문자(文字)로써 교류(交遊)가 있는바, 가히 그 효성(孝誠)을 저버리지 못할지라, 이에 명(銘)에 이르노니, 고려(高麗)가 망할 즈음에, 여진 이도 있고 위대한 이도 있었으며 공훈도 있고 사업도 있었으니 가히 사적이 없는 것만 못하랴?

공께서 두 임금을 섬겼던바 아아! 그 시기를 당하여 한갓 패란(敗亂)이 없었고 한갓 해치(害治)도 없었도다. 문(文)으로 다시리고 무(武)로 안정하여 예(禮)를 밝히고 악(樂)을 갖추었도다. 무엇으로 징거할건가? 문헌(文獻)에 실리고 사기(史記)에 실렸도다. 묘소가 무너졌다 다시 높아졌으니 후손이 더욱 번성함인바, 이에 단갈(短褐)에 사적을 길이 새겨 영원히 이르노니 잊지 말지어다.

승정기원후오갑자(崇禎紀元後五甲子 : 서기 一八六四年)二月 일 세음
십오세손 무과기영 십유세손 진사도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령 경인 춘추관 홍문관 성균관 관상감사
원임규장각제학 양주 조두순 지음
자헌대부 공조판서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평신 신관호 씀.

류덕옥 묘갈(柳德玉墓碣)



- 소재 :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산83-1
- 연대 : 조선 숙종14년(1688년)
- 규모 : 총고 200cm, 고 160cm, 폭 72cm, 두께 32cm
- 찬자 : 심육
- 서자 : 조명교
- 전액 : 조명교

【碑文】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柳公墓碣銘(篆額)

有明朝鮮國嘉善大同知中樞府事柳公墓碣銘 并序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 沈鎔 撰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曹命教 篆

今歲春 鎔在清州之歸溪山中 殊荒僻無人跡 柳持平子裕 忽然枉顧 積歲阻闕 相見雖喜甚 而不省其所以遠來之意 徐扣之則 曰先人之歿 已久矣 墓道之刻 尙闕 願從當世君子而徼惠焉 此所以來也 竊見 其意篤至 且非少壯輕健之日 而涉重險 不以爲勞 誠力可感 足令人動心 至於文字之托 鎔非其人也 乃以不學不文之實 選辭以謝 子裕留不去 請之益力 極知此事本非所堪 婁辭而終不得焉 受狀而讀之 卽李參判濟而所述 叙事精審 非若他人之苟爲溢美而已 遂就狀中 謹加序次而係以銘 公諱德玉字潤寶 全州柳氏 以贈掌令濕爲鼻祖 歷郡守克修兵曹參知思汶 至司評玢 養德不就仕 號遺逸齋 門人默庵李繼孟撰墓誌 曾大父諱永會 禮賓寺參奉贈軍資監正 大父諱東閔 贈工曹參議 考諱偉 登甲科 官止戶曹佐郎 贈禮曹參判 三代之贈 以公貴也 妣熙川金氏 進士諱澤之女 公以孝家四年癸巳十二月二十七日生 自幼少時 有深愛於父母 母夫人患乳臃 貼藥輒抱持出涕 又能愛敬其兄長 所着衣或有先於諸兄者則 不肯服 凡其孝友之得於 天者 多類此 家世以儒業相傳 至公兄弟 益不自懈而屢屈於大小科 及叔氏登小科 公年方二十二 乃慨然曰 以吾兄之 才而今僅得之 況不及兄者耶 始有投筆之志 翌年丙辰 中武科 公自以儒家子弟 由此發身 未足爲父母榮 且不欲離親 爲遊宦計 一日請于參判公曰 出身一事 雖悔無及 竊願摳衣于明齋先生之門 得聞古人爲己之學 朴松堂古事 雖不敢望 亦可少贖自失之罪

參判公曰 旣出後 不宜作此痕跡 但能勿忘是心則 幾矣 至壬戌 薦授宣傳官 丁外艱 服闋後 復入宣傳官 陞武兼 差備局郎 值上親試武才 以執事侍衛 周旋通敏 翌日例替入 上曰 昨日執事者 使之復入 凡七日 帳殿 不敢交替 金相國壽恒見之 稱道不已 自他軍門 移屬自己幕中 尋除都摠都事 移義禁府都事 時適有重獄 公於發問受詞之際 筆翰瞻凜 大爲諸堂所稱賞 連擬秋曹郎 進塗且闕 而以便養爲急 求外除海南縣監 金相國赴謫 過縣境公就見 以所騎資其行 被臺評下吏奪職而歸 道遇金公以軀返 憫其溝壑 隨力匍匐 蓋其急難之義 不以一時利害自撓 是公平日所畜積也 甲戌南相國九萬 入都之初 卽以公差備局郎 除都摠經歷 乙亥大歎 有守令另擇之命 乃出爲長興府 使到官 竭心賑濟 一境無損瘠 隣邑聞風 至者如歸 移陞礪山營將 饑饉之餘 嘯聚極多 譏捕有方 治輕重 不失其宜 良民之以無妄獲免者 多來謝 以家近 換授忠州鎮 因前在礪山時事 罷視 戊寅 有加資之命 始公與討捕使 語及獮賊 所在處 其後誅捕 以公名錄在啓聞中 故蒙賞典 而非公之志也 庚辰拜五衛將 又除海美縣監 俱以病辭 秋除金海府使 地大民衆 俗悍務煩 公爲治詳明 裁決不滯 方伯李公世載 悉以道內訟久難決者歸之 每於判語牒辭 未嘗不稱善 壬午 移兼司僕將 又除同知中樞 夏遭內艱 乙酉以御營別將 除安岳郡守 因道臣褒啓 有表裏之賜 正言尹世綬 信忝公者 論罷後 乃追悔 旋因李東彥事被逮 公終始一辭 竟至徒配延曙驛 未幾宥還 是後累年家食 辛卯始除龜城府使 又被時 相所沮 呈病遞 公素有水土疾 因微感瘁 以九月二十二日卒 弔祭致賻如例 以公曾經同知中樞府事也 權厝于果川 飛由 至戊申 合窆 于夫人墓去舊穴十步而近 公資性勤篤 執守堅確 髫齡氣岸 已使同隊 群兒懼伏 兒或有失言則 公輒怒撻之而不敢拒 見者異之 嘗過韓山竹山津 遇風帆檣混裂 舟載覆 在丹中者 魄視欲死 而公不爲之變色 旣定 衆皆 服徒 宦時寓托閩家 公退必坡讀書史 夜有紙裏盛以栗 投于前 將寢 一少艾 踰牆來就 公峻却之 明日移于他所 在海南 有權宰致書 且使人以徵債爲之宛轉 公以朝禁不許 其人言色 頗不遜 公叱退之 勅門者

不納 縣有宜松山 水營裨 稱摘奸求賄 公乃捉致 施以棍 爲水閘者 亦不敢怒 自金海歸時 出宿裴姓人家 家富而僭 其人聞公至 卽撤扃雕華犯 分之物 前此地主 雖或宿留 未曾如此也 事母夫人甚謹 每以緣不祿於所怙爲至恨 凡於喪祭 必自盡 伯氏嘗有疾 公殫誠救藥 一如親齋時 伯氏每曰 吾之不死 賴有弟也 叔氏盛年決科 卒不幸 撫養其孤女 以至成立 家居僅兒寒餓 己已後 在鄉廬 不復有仕宦心 公雖以武進 而絕無韎韐龜氣 飾已嚴而接人莊 前後在官時 必整冠服以臨民 使之不敢慢 又以善事當路爲深恥 常有夏世之念 錄京外百幣 仍論橋救之術 成一編 名以漫錄 李判書寅燁取見之 嘆曰 可備備局經綸 己庚間 行關於諸道 亦於其錄中 有採用者 配貞夫人廣州李氏 縣監延益之女 端順寡默 事舅姑甚宜 其在疾病喪戚 自竭其誠 升逮事之人 至今猶爲之感歎 先公二年生 歿于戊子四月三日 舉一男一女 男綽司馬兩試俱中 文科歷臺憲 女適參判李匡世 側出一男緣 四女韓師謙金昌復金同衍羅潤福 綽二男輝甲輝丙 一女適李益祚 李參判一男 性孝弘文館校理 堉廢然深伏 不識仕宦家消息久矣 今見公之狀辭 裊裊身首公 卓然可觀 居家則有素士之操 當官則有 循郎之風 寔非今世之所可得 而多蹇小遇 位不稱德 竊爲公惜之 銘曰

才無不周 取捨惟意 燕頤論相 馬革勵志
 利害爰擇 生死一視 言亦不拘 可見終始
 外內踐歷 雖曰屢詩 飛不盡翼 初志莫遂
 留有餘福 以遺後嗣 顯刻非夸 孝思不置

崇禎元年戊辰後 再戊辰 三月 日立

【翻譯文】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유공 묘갈명(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柳公 墓碣銘) 전액(篆額)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유공 묘갈명(有明朝鮮國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柳公 墓碣銘) 서문도 아울러 씀.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성균관제주(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兼成均館祭酒) 심 욱(沈鑣) 찬(撰)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조명조(曹命教) 서(書) 병전(并篆)

금년 봄에 나 욱(埵)은 청주(淸州)의 귀계산(歸溪山) 속에 있었다. 그곳은 몹시 거칠고 외진 곳이라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평(持坪) 유자유(柳子裕 : 子裕는 柳德玉의 아들 柳楨의 字인듯함)가 어느날 갑자기 나를 찾아 왔다. 오랜 세월동안 소식이 막혔던 처지에 서로 만나고 보니 비록 기쁜 심정은 그지 없었지만 그가 먼 길을 오게된 까닭을 깨닫지 못했다. 천천히 그 까닭을 물으니까 그는 「선인(先人 : 돌아가신 아버지)이 작고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나 묘도(墓道)에 비석(碑石)은 아직도 없는 체이니 원컨대 당세(當世)의 군자(君子)에게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기에 온 까닭입니다.」고 하였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의 뜻이 독실하고, 또 젊어 패기가 넘치는 나이가 아닌데도 몹시 험난한 곳을 찾아 오면서 힘들게 여기지 않았으니 그의 성력(誠力)이 감동(感動)스러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에 족하였으나 문자(文字)의 부탁에 이르러서는 나 욱(鎭)은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식도 없고 글재주도 없는 나의 실정(實情)으로써 부드럽게 거절하여 사례(謝禮)하였으나 자유(子裕)는 그대로 머물며 돌아가지 않고서 더욱 강력(強力)하게 청하였다. 나는 이 일이 본디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님은 매우 잘 알았으나 누차 사양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가 가져온 행장(行狀)을 받아 읽어보니 바로 이참판(李參判)제이(濟而 : 柳德玉의 사위인 李匡世의 字인듯함)가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내용이 정밀하고 상세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차

스럽게 그저 미사(美辭)만 늘어 놓은 것과는 달랐다. 그리하여 행장의 내용을 토대로 삼가 서차(序次)를 가하고 명(銘)을 단다.

공(公)의 휘(諱)는 덕옥(德玉), 자(字)는 윤보(潤寶)이다. 진주 유씨(全州柳氏)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추증된 유습(柳濕)을 비조(鼻組)로 하며, 그후로 군수(郡守)를 지낸 극수(克修)와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지낸 사문(思汶)을 거쳐 사평(司評)인 분(汾)에 이르는데, 그는 덕(德)을 함양(涵養)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호(號)는 유일재(遺逸齋)로 문인(門人)인 묵암(默庵) 이계맹(李繼孟)이 그의 묘지(墓誌)를 찬(撰)하였다.

공의 증조부(曾祖父)인 휘(諱) 영회(永會)는 예빈사 참봉(禮賓寺參奉)을 지내고서 군자감 정(軍資監正)에 추증되었고, 조부(祖父)인 휘 동민(東閔)은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인 휘 위(偉)는 문과(文科)의 갑과(甲科)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이 호조좌랑(戶曹佐朗)에 머무르고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다. 한편 삼대(代)가 추증된 것은 공의 신분이 귀해진 때문이었으며, 어머니는 희천 김씨(熙川金氏)로 진사(進士)인 휘(諱) 택(擇)의 딸이다.

공은 효종(孝宗) 사년인 계사년(一六五三) 十二月 二十七日에 출생하였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대해 깊은 애정(愛情)이 있었는데 모부인(母夫人)이 유종(乳腫)을 앓아 약(藥)을 붙이자 대변에 끌어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또 능히 형장(兄長 : 형이나 윗사람)을 애경(愛敬) 하였는데 자기에게 입쳐주는 옷이 흑시라도 여러 형들 보다 앞서 만들어 주는 것이 있으면 입으려고 하지 않았으니 무릇 공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성품을 하늘로부터 타고난 점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

공의 가문(家門)은 대대로 유업(儒業)으로써 서로 전해 왔는데 공의 형제들에 이르러서 더욱 게을리 하지 않고 학문에 힘썼으나 누차 대·소(大小)의 과거(科擧)에 낙방(落榜)하였다. 숙형(叔兄)이 소과(小科)에 합격

했을 적에 이르러 공의 나이가 바야흐로 이십이세였는데 슬픈 모습으로 「우리 형(兄)같은 재주를 지니고도 이제야 겨우 소과에 합격했는데 하물며 재주가 형만 못한 나는 오죽하겠는가? 」고 하고서 비로서 학문을 그만둘 생각을 가졌고, 이듬해인 병진년(一六七六)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공은 자신이 유가(儒家)의 자제로써 무과를 통해 발신(發信 : 몸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음을 가리키며 출신이라고도 함)한 것은 족히 부모의 영예(榮譽)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으며, 또 부모의 곁을 떠나 벼슬에 나설 계책(計策)을 꾸미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아버지인 참판공(參判公)에게 말하기를 「출신(出身)의 일사(一事)는 이제와서 비록 후회한들 어쩔 도리가 없으니 원컨대 명제(明齊 : 尹口)선생의 문하(門下)에 나아가 고인(古人)의 자신(自身)을 위한 학문을 듣게 되었으면 합니다. 박송당^①(朴松堂 : 박영(朴英))의 고사(古事)는 제가 비록 감히 바랄 수 없으나 그래도 자실(自失)한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贖罪)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 하자 참판공은 「이미 집을 나선 뒤로는 이런 흔적(痕跡)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단 네가 그 마음을 잊지 않기만 하면 너의 소원에 가깝게 될 것이다 」고 하였다.

임술년(一六八二)에 이르러 천거(薦舉)에 의해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는데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 그만두었으며 상기(喪期)를 마친 다음 다시 선전관에 들어가 무겸(武兼 : 武臣兼宣傳官의 略稱)에 승진되었고 비국(備局 : 備邊可)의 낭청(郎廳) 선발되어 있던 차에 임금이 친히 무재가(武才)를 시험함을 만나 공은 집사(執事)의 자격으로 임금을 시위(侍衛)하면서 모든 조치를 막힘이 없고 민첩하게 행하였다. 다음날 전례(典例)에 따라 다른 집사(執事)가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어제 집사(執事)한 자를 다시 입시(入侍)하게 하라 」고 하므로 무릇 七日 동안이나 계속된 장전(帳殿 : 임시로 꾸민 임금의 자리로서 대궐 밖의 행사에 친림(親

臨)할 적에 설치함)에 입시하는 자를 감치 교체(交替)하지 못했으며, 김상국(金相國) 수항(壽恒)은 그 일을 보고 공을 칭찬하기를 마지않으면서 다른 군문(軍門)으로부터 자기의 휘하로 이속(移屬)시켰다.

곧 이어 공은 도총부도사(都總府都事)에 제수되었다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이직(移職) 되었으며, 그 때 마침 중대한 옥사^②(獄事)가 있었는데 공은 죄인을 신문(訊問)하고 공사(供辭 : 罪人이 犯罪 사실을 진술하는 말)를 받아 쓸 때에 글솜씨가 풍부하고 신속하였으므로 크게 제당(諸當 : 여러 당사관을 가리키는 말)에게 칭상(稱賞)을 받았다. 이어 형조낭관(刑曹朗官)의 후보(候補)에 올라 벼슬이 활짝 여러려 하였으나 부모를 편히 봉양함을 급하게 여기고서 외임(外任)을 자원하여 해남현감(海南縣監)에 제수되었는데, 김상국(金相國 : 김수항을 가리킴)이 유배지(流配地)로 가면서 해남현(海南縣)의 경내(境內)를 지나니 공은 찾아가 뵈고서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그에게 빌려 주었다. 곧이어 당시 대신(臺臣)의 탄핵을 입고 법리(法吏)에 회부되어 삭직(削職)된 채 고향에 돌아오면서 도중에 김공(金公 : 金壽恒을 가리킴)이 영구(靈柩 : 시체를 넣은 棺을 말함)로써 돌아오는 것을 만나고서는 그가 화(禍)에 걸린 것을 불쌍해하면서 또 힘닿는대로 사후의 일을 도왔다. 대체로 공은 남의 어려움을 지체없이 구해 주는 의리(義理)가 일시적 이해(利害) 때문에 스스로 흔들림이 없었으니 이것이 공히 평소에 축적(蓄績)한 바이다.

갑술년(一六九四)에 남상국(南相國) 구만(九萬)이 입도^③(入都)하자마자 바로 공을 비변사(備邊司)의 낭청(朗廳)으로 차임(差任)하여 도총부경력(都總府經歷)에 제수되었으며, 을해년(一六九五)에 큰 흉년이 들어 수령(守令)을 특별히 고르라는 어명(御命)이 내리자 이에 공은 외임으로 나가 장흥부사(長興府使)가 되었는데, 임지(任地)에 도착해서는 마음을 다해 기민(飢民)들을 구제하여 온 경내(境內)에 구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가

없었고, 이웃 고을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서 찾아오는 자들이 앞을 다투어 몰려왔다.

이어 여산영장(礪山營將)에 이직(移職), 승진되었는데, 기근(饑饉)을 겪은 후로 뿔뿔이 흩어진 주민들을 다시 불러 모이게한 수가 매우 많았고, 죄를 범한 자를 조사하여 붙잡아 들이는 일에 법도를 두어 죄의 경중에 따라 다스리면서 공평함을 잃지 않으니 양민(良民)으로써 뜻밖에 억울한 처지를 벗어나게 된 자들이 대부분 공을 찾아와 고맙다고 하였다. 그 후 집이 가까운 곳에 있는 까닭으로 충주 진영(忠州鎭營)에 바뀌 제수되었으나 앞서 여산(礪山)에 재임하고 있을 적의 일로 인하여 파직되어 갈리었다.

무인년(一六九八)에 공의 품계(品階)를 올려 주라는 어명이 내렸는데, 그에 앞서 공이 토포사(討捕使)와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포악한 흉적(兇賊)이 있는 곳을 언급하고서 그 뒤 토포사가 흉적을 체포하여 다스리자 임금에게 그 일을 아뢰는 계문(啓文)속에 공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이와같은 상전(賞典)을 입게 된 것이나 공이 바라던 것은^⑤아니었다.

경진년(一七〇〇)에 오위장(五衛將)에 임명되고 또 해미현감(海美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병(病)때문에 사양 하였으며, 그 해 가을에 김해부사(金海府使)에 제수되었는데 그곳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민심이 사납고, 업무가 번잡하였으나 공은 고을을 다스림이 자세하고 명확하였으므로 처리해야 될 결재(決裁)가 밀리지 않았다. 그러자 방백(方伯 : 地方長官인 勸察使의 異稱으로 여기서는 경기도 관찰사를 가리킴)으로 있던 이공세재(李公世載)는 도내(道內)의 송사(訟事) 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 판결하기 곤란한 사건들을 모두 공에게 위임(委任)하고서 매양 공이 판결한 말이나 또는 사건에 대해 보고(報告)한 글마다 훌륭하다고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임오년(一七〇二)에 공은 겸사복장(兼司僕將)에 이직(移職)되었고 또

동지중구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 되었으나 그 해 여름에 모친의 상(喪)을 당했으며, 을유년(一七〇五)에 어영청 별장(御營廳別將)으로 있다가 안악군수(安岳郡守)에 제수되어 있으면서, 관찰사(觀察使)가 공의 처적을 조정에 알림으로써 임금이 표리(表裏 : 옷감을 말함)를 하사(下賜)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었다.

정언(正言) 윤세수(尹世綏)는 참으로 공에게 해를 끼친 자로서 공을 논핵하여 파직시킨 후에 즉시^㉔ 후회하였으나 끝이어 공은 이동언(李東彦)의 사건(事件)으로 인해 붙잡혀 갔다. 이때 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로 진술하여 마침내 연서역(延暑驛)에 도배(徒配 : 徒刑定配의 준말)되기에 이르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赦免)되어 돌아왔다. 이때부터 몇 년 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신묘년(一七一)에 비로소 귀성부사(龜城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또 당시 재입하고 있던 재상(宰相)의 방해를 받아 병(病)이 있음을 아뢰자^㉕ 갈리었다.

공은 평소 수토병(水土病)이 있었는데 하찮은 증세로 인해 갑자기 위독해져 구월 이십이일에 작고하였다. 조정에서 조문(弔問), 치제(致祭)하고 부의(賻儀)를 보내 줌이 전례(典例)와 같았으니 그것은 공이 일찌기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과천(果川)의 비산(飛山)에 임시로 장사지냈다가 무신년(?)에 이르러 부인의 무덤에 합장(合葬)하였는데 구혈(舊穴)에서 십보(步) 떨어진 곳이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하고 독실하였고, 소신을 지키미 굳세고 단단하였으며, 어린 시절의 기량(器量)이 벌써 같은 또래나 못 아이들로 하여금 두려워 복종하게 하였으니 아이 중에 혹 실언(失言)하는 자가 있으면 공이 대번에 노하여 매질을 해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므로 보는 이들이 대견스럽게 여겼다. 일찌기 한산(韓山)의 죽산진(竹山津)을 건너면서 바람을 만나 돛대가 찢어져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이 냇이

빠져 죽을 상이 되었으나 공은 그 때문에 안색조차 변하지 않자 위험한 상황이 가라앉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였다.

또 벼슬을 하고 있을 때에 여염집에서 우거(寓居)하고 있었는데 공은 공무(公務)를 마치고 귀가(歸家)하면 반드시 서사(書史)를 펼쳐 읽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중에 종이주머니에 밤톨을 담아 앞에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이어 공이 잠자리에 누우려 하자 어느 젊은 여인이 담을 넘어 와서 공에게 파고드니 공은 준엄하게 뿌리치고는 이튿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공이 해남(海南)에 현감으로 재임하고 있을 적에는 권세있는 수령(守令)이 있어 공에게 편지를 보내 오고, 또 사람을 시켜 자신이 벌린 공금(公金)의 징수(徵收) 기한(期限)을 늦춰달라고 하였는데 공은 나라의 법(法)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니 그 사람의 언색(言色)이 자못 불손(不遜)하였다. 그러자 공은 그를 꾸짖어 물리치고는 문지기더러 그를 들여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또 해남현(海南縣)에는 소나무의 식목(植木)에 적합한 산이 있었는데, 수영(水營)의 비졸(婢卒)이 적간(摘奸 : 범금을 어긴 자를 잡아냄)한답시고 뇌물을 요구하자 공은 즉시 그를 잡아다가 곤장(棍杖)으로 다스리니 수사(水使)로 있던 자도 감히 노여워하지 못했다.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있다가 돌아올 적에 임지(任地)를 떠나면서 배씨(裴氏) 성(姓)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집이 부자(富者)인데 다 분수에 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자였다. 이에 그 사람은 공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즉시 화려한 살림불이와 분수대 지나친 물건들을 철거(撤去)하였는데, 공 보다 앞서 재임한 지주(地主)들이 혹시 그의 집에 유숙(留宿)하였을 때에는 일찌기 그가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모부인(母父人)을 섬길 적에는 몹시 태도를 조심하였고, 매양 자신의 봉양(奉養)이 아버지의 생전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극한 한(恨)으로 여겼으며, 모든 상·제(喪祭)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다하였다. 또 공의

큰 형이 일찌기 병에 걸렸는데, 공은 성의를 다해 치료하기를 한결같이 어버이가 아팠을 때와 같이 하였으므로 큰 형은 매양 「내가 죽지 않게 된 것은 아우가 있음에 힘입어서이다」고 말했으며, 세째 형이 한창 나이에 과거(科擧)를 통과했으나 마침내 불행하게 일찍 작고하니 공은 그의 딸을 보살피고 양육하여 성인(成人)이 되게 하였다.

한편 집안의 형편은 겨우 추위와 굶주림을 면할 정도였으나 기사년(一六八九)이후로 시골의 오두막에 살면서도 다시는 벼슬에 나설 마음을 갖지 않았다. 또 공은 비록 무과(武科)를 통해 벼슬에 나아갔지만 무인(武人)의 거칠고 엉성한 태도가 전혀 없어서 자신의 몸을 단속함에는 엄격하였고 남을 상대할 적에는 태도가 장중(莊重)하였으니 전후 벼슬에 재임하고 있을적에는 반드시 관복(冠服)을 단정(端正)히 한 채 주민들을 대하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였다.

또 힘깨나 있는 이를 잘 섬기는 짓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으며, 항상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경외(京外)의 여러가지 폐단을 기록하고 아울러 그것들을 바로 잡고 구제하는 방법을 논하여 한 편(編)의 책으로 만들고서 《만록(漫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참판(李參判) 인엽(人燁)이 그 책을 가져다 보고서 「가히 비국(備局 : 비변사)의 경륜(經綸 : 나라를 다스리는 法典을 뜻함)으로 비치(備置)할 만하다」고 찬탄하였으며, 기축(己丑), 경인(庚寅)년 사이(一七〇九 ~ 一七一〇)에 조정에서 각 도에 공문(公文)을 하달할 적에도 또한 공의 《만록》의 내용에서 채용(採用)한 시책(施策)이 있었다.

공의 아내인 정부인(貞夫人)은 광주 이씨(廣州李氏)로 현감(縣監) 정의(廷益)의 딸인데, 부인은 성품이 단정(端正), 온순(溫順)하고 태도가 과묵(寡默), 조용하였으며, 시부모를 섬기는 정성이 몹시 도리에 마땅하였으니 시부모가 병에 누워 있을때나 그들의 상(喪)을 당해 슬퍼할 적에 스스

로 자기의 성심을 다했으므로 부인의 그러한 행실을 지켜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오히려 부인의 훌륭함을 감탄하고 있다. 부인은 공 보다 이년 먼저 태어났고 무자년(一七〇八)四月三日에 작고, 一남一녀를 낳았는데, 아들인 작(綽)은 사마시(司馬試)의 양시(兩試)에 모두 합격하여 문과(文科)에 급제한 다음 대헌(臺憲)을 역임하였고 딸은 참판(參判) 이광세(李匡世)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 소생의 일남은 록(錄)이고 四녀는 한사겸(韓師謙), 김창복(金昌復), 김동연(金同衍), 나운복(羅潤福)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작(綽)의 이남은 휘갑(輝甲), 휘병(輝丙)이고 일녀는 이익조(李益祚)에게 출가하였다. 공의 사위인 이참판(李參判 : 李匡을 가리킴)의 외아들 성효(性孝)는 홍문관교리(弘文館敎理)이다.

나 육(堉)은 폐인(廢人)처럼 초야(蕉野)에 묻혀 지내느라 벼슬하는 사람들의 소식(消息)을 알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 공의 행장(行狀)에 쓰인 글을 보니 공은 자신의 몸을 복되게 하고 공사(公事)를 우선으로 여긴 점에 있어 볼 만한 행실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에서 지낼 적엔 소사(素士 :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의 지조가 있었고, 벼슬에 나가서는 순량(循良 : 법을 지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의 풍도가 있었으니 이는 실로 요즘 세상에 찾아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으나 곤경(困境)에 빠진 적은 많았고 임금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때는 적었으니 벼슬이 덕(德)에 부합하지 않음을 저으기 공을 위해 애석하게 여기도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재주를 빠짐없이 갖추고도, 취하고 버림은 자기 뜻대로만 하였고다.

관상(觀相)을 논하면 연합(燕嶺)같았고, 지조에 힘쓴 것은 마혁(馬奕)같았네

이해(利害)를 어찌 가릴 것인가? 생(生)과 사(死)를 한결같이 보았는것.

인사(言辭)도 또한 구애받지 않았으니, 시종(始終)을 알 만 하구나.
 내외(內外)에 지낸 벼슬들은, 비록 여러차례 재주를 시험했다 하지만
 나는 데 날개를 다 쓸 수 없었으니, 초지(初志)를 이루지는 못하였네.
 여복(餘福)을 남겨 두어, 후손에게 끼쳤으며
 비석에 새긴 글이 과장한 게 아니니, 효성스런 후손들은 다함이 없으리라.

숭정(崇禎 : 명나라 설종의 年號) 원년(元年) 무진(戊辰) 후 두번째 무
 진(後再戊辰)三月 일 세움

주(註)

- ① 박 송당(朴松堂)의 고사(故事) : 송당(松堂) 박영(朴英)은 원래 무예가
 출중하여 무과를 통해 벼슬에 나아갔으나 후에는 정 봉(鄭鵬)의 문하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근간(根幹)으로 한 《대학(大學)》을 수업하여 학자
 로서 대성한 옛 일을 가리킴, 《松堂集》참고
- ② 중대한 옥사(獄事) : 여성(女性)이 주모자(主謀者)로 알려진 사건(事
 件)이나 정확하지 않음
- ③ 갑술년(一六九四)에……하자마자 : 숙종(肅宗) 이십년(一六九四)에 갑
 술옥사(甲戌獄事)로 인해 남인(南人)들이 실각(失脚)하고 서인(西人)중
 특히 소론(小論)이 대거 기용되면서 숙종 一五년(一六八九)에 기사환국
 (己巳換局)으로 인해 강릉(江陵)에 유배(流配)되었던 남구만(南九萬) 이
 소론의 영수(領袖)로써 다시 조정에 들어와 영의정(領議政)이 된 일을 가
 리킴
- ④ 앞서 여산(礪山)에 재임하고 있을 적의 일 : 그가 여산영장(礪山營將)
 에 재임하면서 새로 부임해 온 병사(兵士) 신 유(申 錄)와의 불화(不和)
 로 인해 신 유는 옥(獄)에 갇히고 그는 파직된 사건을 말함

⑤ 그가 파직되어 시골에 있으면서 토포사(討捕使) 윤항미(尹恒美)와 얘기를 나누다가 흉적(兇賊)의 소재를 말해 주고 곧 이어 그는 청(淸)나라에 가는 서문중(徐文重)을 따라 출국(出國)했다. 한편 그가 청나라에 가 있는 동안 윤항미는 흉적들을 체포하여 치죄(治罪)하였고 그 일을 조정(朝廷)에 아뢰면서 그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그가 귀국하니 가자(加賚)하라는 은전(恩典)이 내렸으며, 흉적은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둘러 싸고 일어나 무고(巫蠱)의 옥사(獄事)에 관련된 자를 가리키는 듯하다.

⑥ 평소부터 그와 사감(私憾)이 깊었던 조태래(趙泰來 : 老論四大臣의 한 사람인 趙泰采의 兄)의 부제(婦弟)인 윤세수(尹世綏)는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있으면서 조태래의 사주(使嗾)를 받아 그를 무고(誣告)하였으나, 곧이어 후회하는 말을 남에게 하고서 그에게 진하도록 했다고 함

⑦ 이동언(李東彦)의 사건(事件) : 그가 청나라에서 귀국하는 길에 파주(坡州)에서 아버지의 친구인 이세무(李世茂)의 장례(葬禮)에 조문(弔問)하려다 그만 두고 왔는데, 이세무의 아들인 이동언(李東彦)이 조태억(趙泰億)의 모함으로 인해 투옥될 무렵에 그도 연루되었다.

⑧ 여기서의 재상(宰相)은 김창집(金昌集)을 가리킨다.

⑨ 관상(觀相)을 ... 마혁(馬革) 같았도다 : 연합(燕頤)은 후한(後漢)의 반초(班超)를 가리키며, 마혁(馬革)은 후한의 마원(馬援)을 가리킨다. 한편 반초가 관상쟁이에게 자신의 관상(觀相)이 어떠냐고 물으니 턱이 제비 처럼 생기고 목이 호랑이처럼 생겨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마원은 남아(男兒)로 태어나면 응당 들판에서 전사(戰死)하여 그저 말 가죽에 시신(屍身)이 쌓인채 고향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달 묘비(李厚達墓碑)



- 소재: 안양시 관양동
- 연대: 조선 현종 7년(1841년)
- 규모: 비고 115cm, 폭 50cm, 두께 20cm
- 찬자: 이 복 현
- 서자: 이 제 완

【碑 文】

公諱厚達字君集 完山之李 出元宗大王第二男綾原大君諱 丁丑斥和大節 與日月爭光 贈諡貞孝公 郎公高祖也 考諱烜東昌君妣比清州韓氏 以肅宗甲午正月十五日生公 英宗戊辰 擢文科壯元 唱第日 恩顧隆重 由起居注 轉登臺閣 討亂賊 明大義 請削逆臣相職 入玉暑春坊 出拜泰川·綾州 以孫貴贈吏曹參議 辛巳二月二十二日卒 壽四十八 夫人申氏 壯節之後 正郎諱濬女 先公二年 壬辰正月二十日生 後公五年 丙戌二月初十日卒 壽五十五 從贈淑夫人 果川三峴里負乾之原 合封焉 女適士人申景著 系男爾鉉 贈吏參 吏參男濟完 武科兵使 二女 士人申星綠 武防禦趙禹錫妻 兵使一男健和 出戶宗祀 系男寬和 幼一女 武經歷蔡東健妻 防禦一男 武宣傳存一 內外孫曾 男女若干人 嗚呼 公愷悌貞亮 鸞立丹階 直聲上格 亂賊知懼 眞聖代純臣 當世名類 天年不永 卒未人施 至今嗟惜云爾

三從姪 通訓大夫尙衣院僉正 復鉉 謹記

不肖孫 慶尙左道兵馬節度使 濟完 謹書

崇禎紀元後 四辛丑 五月 十三日立

【翻譯文】

공(公)의 휘(諱)는 후달(厚達)이고 자(字)는 군집(君集)이며, 완산 이씨(完山(全州古號)李氏)로 원종 대왕(元宗大王)의 둘째 아들인 능원대군(綾原大君) 휘(諱) 보(甫)에서 나왔다. 그는 정축년(一六三七)에 화의(和議)를 배척한 커다란 절의(節義)로써 해와 달로 더불어 빛을 다투며 정효공(靖孝公)의 시호(諡號)가 내려오니 이가 바로 공의 고조(高祖)이다.

아버지 휘(諱) 정(烜)은 동창군(東昌君)이며, 어머니는 청주 한씨(淸州韓氏)인데 숙종(肅宗) 갑오년(一七一四) 정월 십오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영조(英祖) 무진년(一七四八)에 문과(文科)의 장원(壯元)에 뽑혔는

데, 급제자(及第者)들의 이름을 부르는 날에 임금께서 돌아 보심이 융성하고 심중하였다.

기거주(起居注)를 거쳐 전직(轉職)되어 대각(臺閣 : 사헌부(司憲府)에 올라서 난적(亂賊)을 공격하고 대의(大義)를 천명하였으며, 역신(逆臣)의 상직(相職 : 재상의 직책)을 삭탈(削奪) 시키자고 청했다.

옥서(玉署 : 홍문관(弘文館))와 춘방(春坊 : 세자 시장원(世子侍講院))에 들어 갔으며, 외직(外職)으로는 태천(泰川), 능주(綾州) 등에 제수되었다. 손자(孫子)의 신분이 귀해진 이유로써 이조 참의(夷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신사년(一七六一)二月二十二일에 작고하니 향년 四十八세이다.

아내인 신씨(申氏)는 장절공(壯節公) 승겸(崇謙)의 후손으로 정랑(正郎)을 지낸 휘(諱) 호(濤)의 딸인데, 공보다二年 앞선 임진년(一七一二) 정월 이십일에 출생하여 공 보다 오년 후인 병술년(一七六六)二月十一에 작고하니 향년 五五세이며, 공을 따라서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고, 과천(果川) 삼현리(三峴里)의 부건(負乾)의 언덕에 합장(合葬)하였다.

딸은 사인(士人)이 신경저(申景著)에게 출가하였고, 계자(繼子 :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인 이현(爾鉉)은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이현의 아들 제완(濟完)은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병사(兵使)를 지내고, 두딸은 사인(舍人)인 신성록(申星祿)과 무과에 급제하여 방어사(防禦使)로 지낸 조우석(趙禹錫)의 아내이다.

병사(兵使)인 제완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은 건화(健和)로 출계(出系)하여 종사(宗祀)를 주관하고 계자(繼子)인 관화(寬和)는 어리며, 딸이 하나인데 무과에 급제한 경력(經歷)이 있는 채동건(蔡東健)의 아내이다.

방어사인 조우석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존일(存一)이다. 내외(內外)의 손증(孫曾 : 손자녀와 증손자녀)이 남여 약간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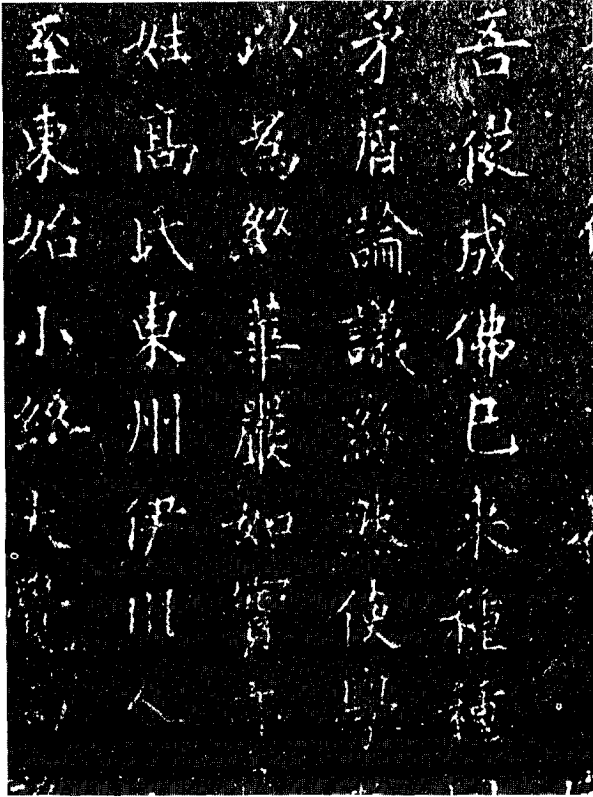
아! 공은 기상(氣像)이 화락(和樂)하고 단아(端雅)하였으며, 마음이 곧고 신의(信義)가 있어서 매서운 태도로 단계(丹階 : 궁궐(宮闕))에 서서 곧은 말로 임금을 바로 잡아 난적(亂賊)이 두려워 할 줄을 알았으니 참으로 성대(聖代)의 순신(純臣)이며, 당세(當世)의 명류(名類)였으나 향년(享年)이 길지 않아 마침내 크게 쓰이지 못했음을 지금까지 슬퍼하고 아깝게 여긴다.

삼종질(三從姪) 통훈대부(通訓大夫)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 복현(復鉉)은 삼가지음
불초손(不肖孫)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 제완(濟完)은 삼가 씀

승정(崇禎 : 중국 明 毅宗의 연호) 기원후(紀元後) 네번째 신축(四辛丑) 四월 一三日 세움.

4) 부도비(浮屠碑)

안양시 칠층석탑명(安養寺七層石塔銘)



- 소재: 안양시 석수동 산27
- 연대: 고려 인종 9년(1131년)
- 규모: ?
- 찬자: 김부식
- 서자: 이원부

註) 이 비문은 三國史記의 저자 金富軾이 지은 것으로 大東金石書에 탁본만이 실려있다. 이 비문은 安養寺에 관한 비문은 틀림없지만 왕건이 안양사를 창건할 당시 세웠던 7층 벽돌 탑을 위한 塔碑는 아니고 그 당시 此寺의 고승인 속성高氏를 위한 탑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塔銘文】

李元符 奉 宣書
 吾從成佛已來 種種因緣…
 矛盾 論議紛然 使學者亡…
 以爲終 華嚴如實 亦具四…
 姓高氏 東州伊州人也 父…
 至東 始小終大 覺而語之…

【翻譯文】

이원부(李元符)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①선서(宣書) 함
 내가 성불(成佛)을 좇은 ②이후로 ③종종(種種) 인연(因緣)이 ……하여…
 ……이 모순(矛盾)되니 논의(論議)가 분연(紛然: 일정하지 않고 분분한
 모양)하여 학자(學者)로 하여금…할 수가 없었다.
 ……으로써 끝맺음을 하다.
 ④화엄(華嚴)은 ⑤여실(如實)하고 또한 ⑥사…(四…?) 갖추었다. ……
 ……은 성(姓)은 고씨(高氏)로 동주(東州)의 이천(伊川)사람이다. 아버지는…
 ……동쪽(우리나라 또는 東州를 가리킴)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보잘 것
 이 없었으나 나중에는 성대(盛大)해졌다. 깨닫고서 말하기⑦를(?)…

(註)

이 글은 고려 때의 명필가인 이원부(李元符)가 고려 인종(仁宗)의 분부를
 받아 쓴 것이다. 《朝鮮金石總覽》

② 여기서의 「내가」는 고려 인종(仁宗)을 말하며 성불(成佛)을 좇는다는
 것은 세속의 번뇌(煩惱)를 잊고 불가(佛家)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함

을 말한다.

- ③ 종중(種種):모양이나 성질이 다른 다양성(多樣性)을 뜻하는 말로 범어(梵語)로는 Citra 또는 Vicitra 및 nānātva에 해당한다. 《韓國佛敎大辭典》
- ④ 화엄(華嚴):본래는 불경(佛經)의 명칭이나 여기서는 화엄경(華嚴經)을 따르는 종파(宗派) 또는 법문(法門)인 화엄종(華嚴宗)을 뜻한다.
- ⑤ 여실(如實):불교(佛敎)에서는 진여(眞如)와 통용되는 말인데, 실상(實相)과 같다는 뜻이다. 《法華經》《行宗記》참고
- ⑥ 사…(四…:?):불교(佛敎)에서 자주 쓰이는 사유(四有)·사생(四生)·사겁(四劫)·사계(四戒)·사대(四大)·사의(四儀)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명문(銘文)이 누락되어 확실하지 않다.
- ⑦ 원문의 「覺而語之」는 진리(眞理)를 각오(覺悟)하고서 말했다는 뜻으로서, 이야기한 내용이 계속 이어졌으나 파손(破損)된듯 하다.

반월암 백운당 부도(半月岩 白雲堂 浮屠)

【碑文】
白雲堂大禪師
密陽長氏 □ □ 塔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11번지
- 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부도고 80cm, 폭 50cm, 두께 37cm

註) 구전에 시집간지 3일만에 여승이된 비구니의 부도비라 전하여 진다.

반월암 명성당 부도(半月岩·明性堂浮屠)



【碑文】
明性堂大師之塔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11번지
- 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비고 102cm, 폭 50cm

註) 조선시대는 고려와 달리 송유배불로 인하여 불교적 석조미술이 단순해지는데 석종(石鐘) 형태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부도다.
註) 구전에 반월암 신도이던 농부가 밭에서 괭이질을하다 괭이끝에 개구리가 찍혀 나온것을 보고 생명체의 목숨이 찰나임을 안후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중이 되었는데 그 스님이 명성당이라 한다.

반월암 마애서영당부도(半月岩 磨崖西影堂浮屠)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11번지
- 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비고 100cm, 폭 50cm

西影堂
秋氏：

【浮屠文】

註) 불자들은 마애부도의 사각암공에 잔돌을 던져 들어가면 개인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지면에서 4~5m 높이의 절벽면에 조성 되어있다

염불암 서영당 부도(念佛庵 西影堂 浮屠)



【碑文】

信士西京堂智泓
嘉慶十五年庚午
都化主信士大信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7번지
- 연대 : 조선 순조10년(1810년)
- 규모 : 비고 115cm, 폭 50cm

염불암 인봉당 부도(念佛岩印峰堂浮屠)

【碑文】

嘉慶二十一年丙子七月日
清信士印峯堂大心溶
都化主子孫釋明察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17번지
- 연대 : 조선 순조 16년(1816년)
- 규모 : 비고 124cm, 폭 52cm

염불암 현진당 부도(念佛岩現眞堂 浮屠)



【浮屠文】

乾隆四十八年十月日

居士法洪現眞堂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17번지
- 연대 : 조선 정조7년(1783년)
- 규모 : 비고 54cm, 폭 42cm

불성사 마애 각원대사 부도(佛性寺 磨崖 覺圓大師 浮屠)

【浮屠文】

立比

覺圓禪

丙辰八月日



- 소재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17번지
- 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비고 94cm, 폭 52cm

5) 애각(崖刻)

마애삼존불(磨崖三尊佛)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10-1
- 연대 : 조선 영조39년 (1763년)
- 규모 : 고 200cm, 폭 250cm

(註) 주존은 치성광 여래이며 좌우 협시 보살은 일광·월광보살로 칠성각에 모셔져 있는데 이는 불교와 민간신앙의 결합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銘 文】

乾隆二十八年辛未八月日

化主悟心 首施主 徐世俊

(七星閣初創銘文)

朝鮮國衿川縣三聖山七星殿

佛像法堂新建大施主秩

金萬眞 文春光

善女(處海,處澄) 姜世珍

千德重 崔德龍

安國光

通政金永贊

己亥生宋氏女韓

壬寅生 宋氏

金世俊

處士 性海

丙午生元氏 金大聖 元應良

壬寅生金氏

乾隆二十九年甲申九月日畢功

大功德主悟心上佐別座進察

〈重健文〉

七星閣新建重建大施主

乾命辛亥生金周容

乾命辛亥生金大容

奉母丁丑生趙氏

以此功德往生淨土

光緒七年辛巳四月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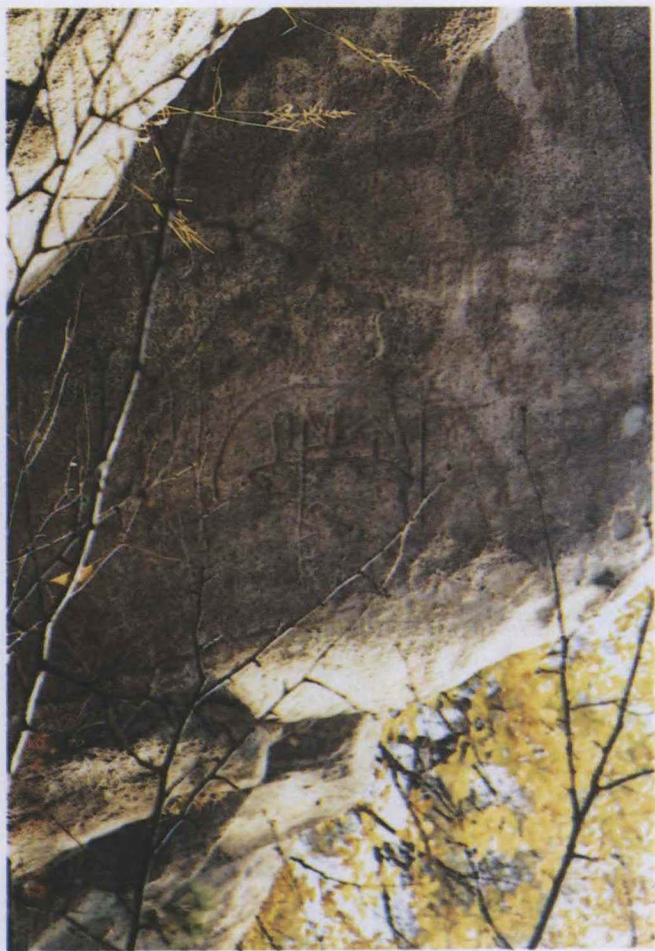
마애종(磨崖鍾)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32번지
- 연대 : 신라말 ~ 고려초
- 규모 : 고 4m, 폭 3m

註) 우리나라 유일의 마애종으로 쇠사슬은 음통을 갖춘 종류에 연결되어있고 상대에 붙은 유곽과 연화문 당좌 및 하대가 짜임새 있으며 안정감을 가진, 스님이 종을 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삼막사 마애각화(三幕寺磨崖刻畫)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 10-1
- 연대 : 근세
- 규모 : 고 140cm, 폭 120cm

註) 주변에 초와 향을 피우던 흔적이 있어 오래전부터 무속적 기원터로 또는 대상으로 이용된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6) 당간기(幢竿記)

당간지주명문(幢竿支柱銘文)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212-1
- 연대 : 신라 법흥왕 2년(827년)
- 규모 : 석주명고 162cm, 폭 48cm

註) 주변에 초와 향을 피우던 흔적이 있어 오래전부터 무속적 기원터로 또는 대상으로 이용된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石柱銘文】

寶曆二年歲次丙午八月朔六辛丑日 中初寺東方僧岳一石分二得 同月二十八日
 二徒作初 奄九月一日此處至 丁未年二月 日了成之節州統皇龍寺恒昌和尚
 上坐眞行法師 貞坐義說法師 上坐年嵩法師 史師二妙凡法師則永法師 典都唯
 乃二昌樂 法師法智法師 徒上二晉生法師眞方法師 作上秀南法師

【翻譯文】

보력(寶曆 : 唐나라 擘宗의 年號) 二년 세차(歲次) 병오년(八二六년 신라
 興德王 一년) 八월 초 엿새인 신축일(辛丑日)에 중초사(中初寺) 동쪽에 있
 는 승악(僧岳)에서 돌 하나를 쪼개 두 개를 ①얻었다. 같은 달 二十八일에
 ②二도(二徒)가 작업(作業)을 시작하였고, 구월 일일에 이곳에 이르렀으며
 이듬해인 정미년(八二七) 이월 삼십일에 공사(工事)를 마쳤다.

③절주통(節州統)은 황룡사(皇龍寺)의 ④항창화상(恒昌和尚)이고, 상좌(上
 坐)는 진행법사(眞行法師)이며, ⑤정좌(貞坐)는 의설법사(義說法師)이고,
 상좌(上坐)는 연승법사(年嵩法師)이다. ⑥사사(史師)는 둘이니 묘범법사
 (妙凡法師)와 즉영법사(則永法師)이고, ⑦전도유내(典都唯乃)는 둘인데
 창락법사(昌樂法師)와 법지법사(法智法師)이고, ⑧도상(徒上)은 둘이니 지
 생법사(智生法師)와 진방법사(眞方法師)이며, ⑨작상(作上)은 수남법사(秀
 南法師)이다.

註)

- ① 당간 석주기(幢竿石柱記): 당간(幢竿)은 사찰(寺刹)의 입구에 법당(法
 幢)을 달아두는 장대인데, 이 당간을 높이 세우기 위해 양쪽에 지주
 (支柱)를 세우고저 그 사이에 당간을 끼운다. 이때 지주는 대체로 석
 재(石材)나 철제(鐵製)로 만들어 세우는데 여기서는 돌로 세우고서 그

일의 내력(來歷)을 쓴 것이다. 한편 중초사(中初寺)의 당간 지주(幢竿支柱)는 통일 신라때의 것으로는 유일하게 주기(柱記)가 음각(陰刻)되어 있어서 당간 지주의 양식(樣式)을 추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보물(寶物: 제4호)로 지정되었다.

- ② 二도(二徒) : 二도(二徒)는 두 조(組)로 편성(編成)된 일꾼을 가리킨다.
- ③ 절주통(節州統):주통(州統)은 국통(國統)·군통(郡統)과 함께 승직(僧職)에 해당하며, 이는 곧 절주(節州)의주통(州統)이라는 의미인 듯하다.
- ④ 항창화상(恒昌和尚):항창(恒昌)은 법명(法名)이며, 화상(和尚)은 수행(遂行)에 힘써 덕(德)이 높은 승려(僧侶)대한 칭호이다. 한편 신라때에는 황룡사(皇龍寺)의 주지(主持)가 국통(國統)의 자격을 지니고서 그 밑의 주통(州統)·군통(郡統)등을 통솔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 ⑤ 상좌(上坐):사찰(寺刹)의 승려들을 통솔하고 사무를 관장하는 직명(職名)으로 상좌승(上坐僧)·상좌(上座)라고도 쓴다.
- ⑥ 정좌(貞坐):승직(僧職)의 일종으로 원주(院主)라고도 한다.
- ⑦ 사사(史師):역시 승직의 일종으로 승려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 ⑧ 전도유내(典都唯乃):승직의 일종으로 전좌(典座)또는 유나(維那)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흥왕때 처음으로 보량법사(寶良法師)를 대도유나(大都維那)에 임명하였다.
- ⑨⑩ 도상(徒上)·작상(作上):승직의 일종인 듯 하나 역할은 확실하지 않다.

※ 본문의 화상(和尚)一인과 법사(法師) 十인은 이 일을 지휘하고 감독한 자라는 뜻에서 기록한 것 같다.

7) 공적비(功績碑)

불망비(不忘碑)



- 소재 : 안양시 동안구 1504
- 연대 : 조선 고종6년 (1869년)
- 규모 : 비고 120cm, 폭 63cm, 두께 32cm

【碑文】

• 前面

縣監李侯泰應永世不忘碑

• 後面

同治八年己巳三月日

註) 현감 이태응 불망비는 마을 주민에게 풍요와 번영의 상징물로 함께 하고 있다.

8) 암각(岩刻)

삼귀자(三龜字)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10-1
- 연대 : 1920년
- 규모 : 비고 106cm,
폭 213cm

【岩刻文】
三龜字

觀音夢授長壽靈字 佛紀二千九百四
十七年 庚申重陽 佛弟子 池雲英敬
書

【施主子銘】
三龜字石刻施主

光明眼李貞淑 丙辰生 朴氏 光明相、
大覺心 金東淑 戊辰生 李氏 光明功

매바위각자(매바위刻字)

【岩刻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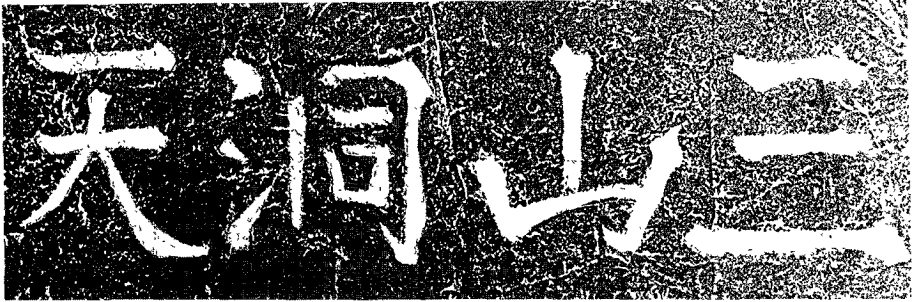
南無阿彌陀佛

大清光緒二十年甲午三月日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2-14
- 연대 : 조선 고종31년 (1894년)
- 규모 : 고 184cm, 폭 40cm

삼산동천(三山洞天)



- 소재 : 안양시 관양동 488번지
- 연대 : 조선시대 (숙종)
- 규모 : 비고 62cm, 폭 182cm

三山洞天
【岩刻文】

註) 조선 숙종때의 문인 오익서(吳益瑞)의호 삼산(三山)을 따서 그가 거주한 마을이란 뜻으로 뒷산 바위에 새긴것이다

만력십팔년조각자(萬曆十八年造刻字)



- 소재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17
- 연대 : 조선 선조23년 (1590년)
- 규모 : 고 60cm, 폭 150cm, 두께 23cm

【岩刻文】
萬曆十八年造

註) 불성사 약력에 : "靑虛大師再創比寺時節有明萬曆十八年他"라 하여 선조 23년 사찰증건시 표 석임을 알수가 있다

신금대(神金臺)



神金臺

【岩刻文】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10-1
- 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고 55cm, 폭 20cm

등곡대(燈谷臺)

燈谷臺

【岩刻文】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10-1
- 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고 97cm, 폭 40cm

註) 등곡은 세조때 왕사(王師) 金學祖(1431년~?)의 호로 불경의 국역 및 법주사, 해인사 주지를 지냈다. 속리산 북천암에 사리탑이 있다.

9) 기 타(其他)

감로정(甘露井)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10-1
- 연대 : 조선 현종3년 (1887년)
- 규모 : 고 30cm,
폭 83cm,
두께 20cm

【石刻銘文】
 甘露井
 (石槽銘文)
 道光十七年丁酉十月水白大施主□
 乾命金昌泉·坤命人金氏·長子金壽
 萬·乾命金中得 乾命安□云·乾命安
 有泉·尙富辛卯生崔氏·尙富乙巳生
 金氏·尙富戊戌生趙氏·引勸女正化
 石手元光得化主僧善暎

약사영천(藥師靈泉)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11번지
- 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고 30cm, 폭 76cm, 두께 30cm

藥
師
靈
泉

【石
刻
銘
文
】

주) 근세 작자미상 관악산 유람가 한귀절에 半月庵에 들어서니 藥水靈泉 양전하고 라 하여 石刻銘文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

풍양조씨 정려판(豐讓趙氏 旌閭板)



- 소재 : 안양시 관양동 488번지
- 연대 : 조선 정조23년 (1799년)
- 규모 : 고 45cm, 폭 215cm

【旌閭板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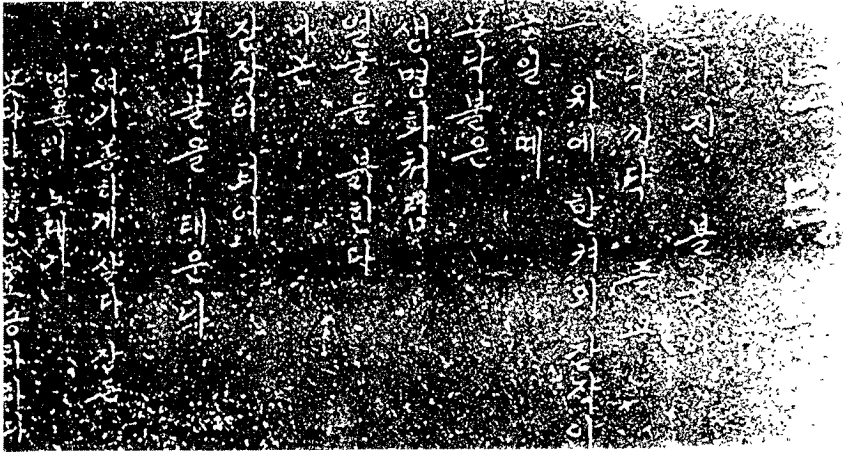
烈女嘉善大夫黃海道觀察使兼兵
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使
李義駿妻貞夫人豐壤趙氏之門
上之二十三年己未二月日
命旌

삼막사 주초석 문양(三幕寺柱礎石紋樣)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10-1
- 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고 57cm, 폭 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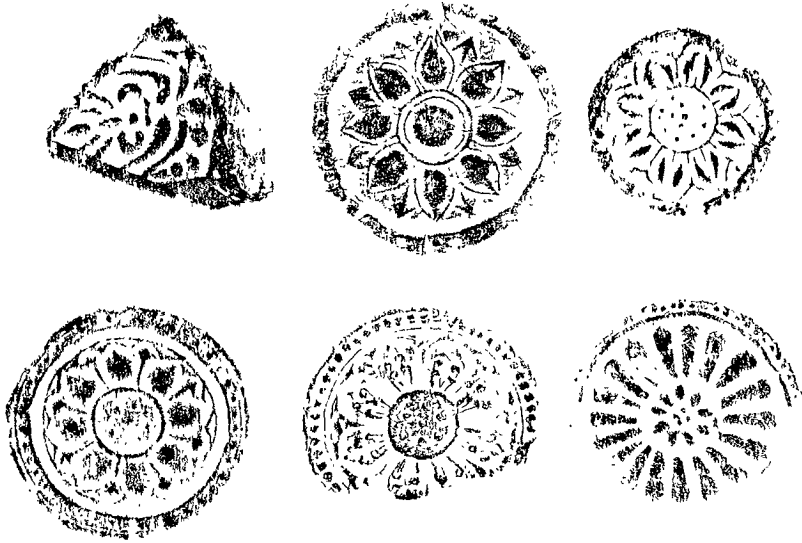
이성환시비(李星煥詩碑)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산2번지
- 연대 : 1973년
- 규모 : 고 28cm, 폭 57cm

註) 李星煥(?~1973)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73년 12월 27일 뇌막염으로 사망했으며 학생시절에 쓴 모닥불이 시비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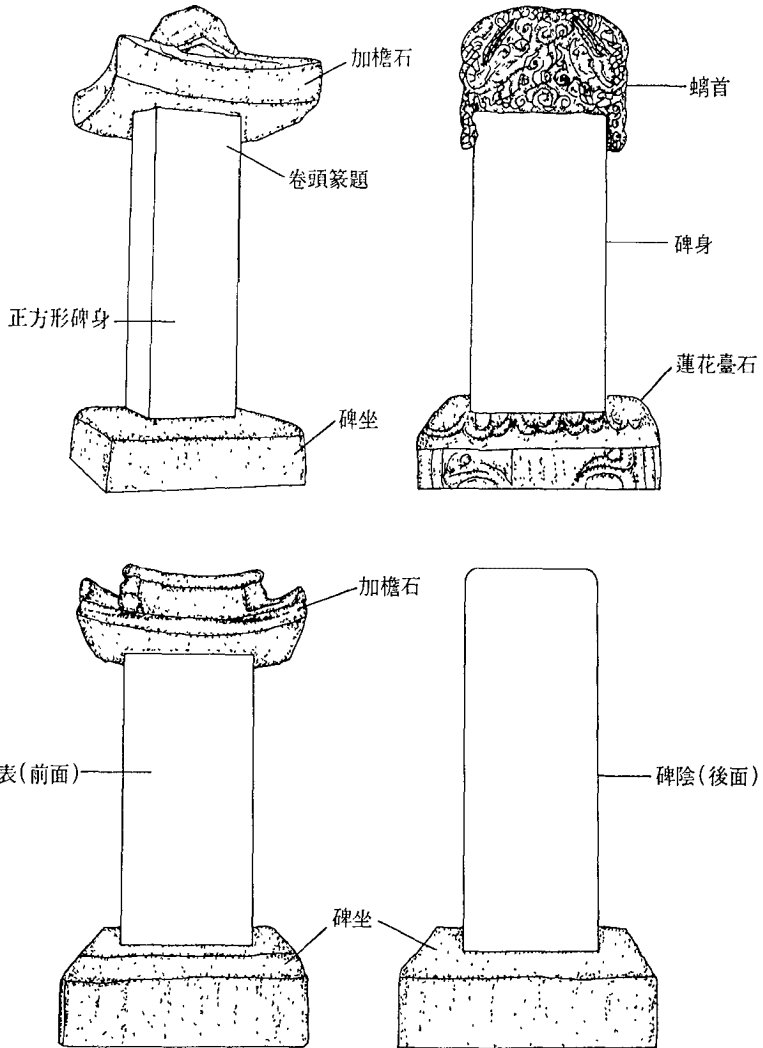
중초사지 와당 문양(中初寺址瓦當紋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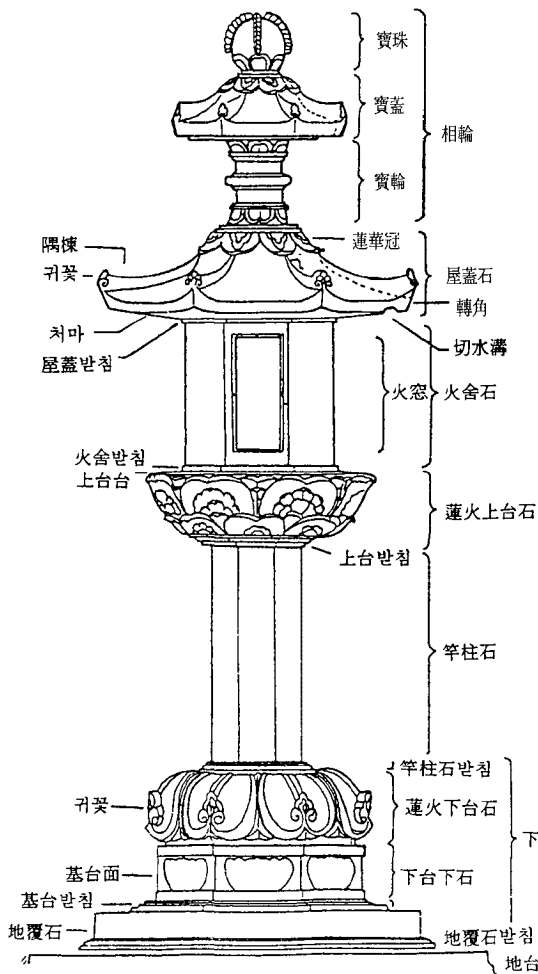
- 소재 : 안양시 석수동 212-1
- 연대 : 신라시대

註) 중초사지는 신라~고려초의 사찰로 전형적인 삼국시대의 가람배치인 남탑북당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와당은 연화문 출엽과 쌍엽등이 있고 회백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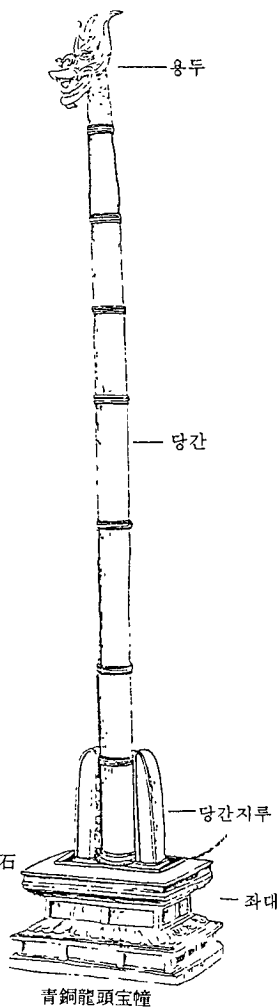
(石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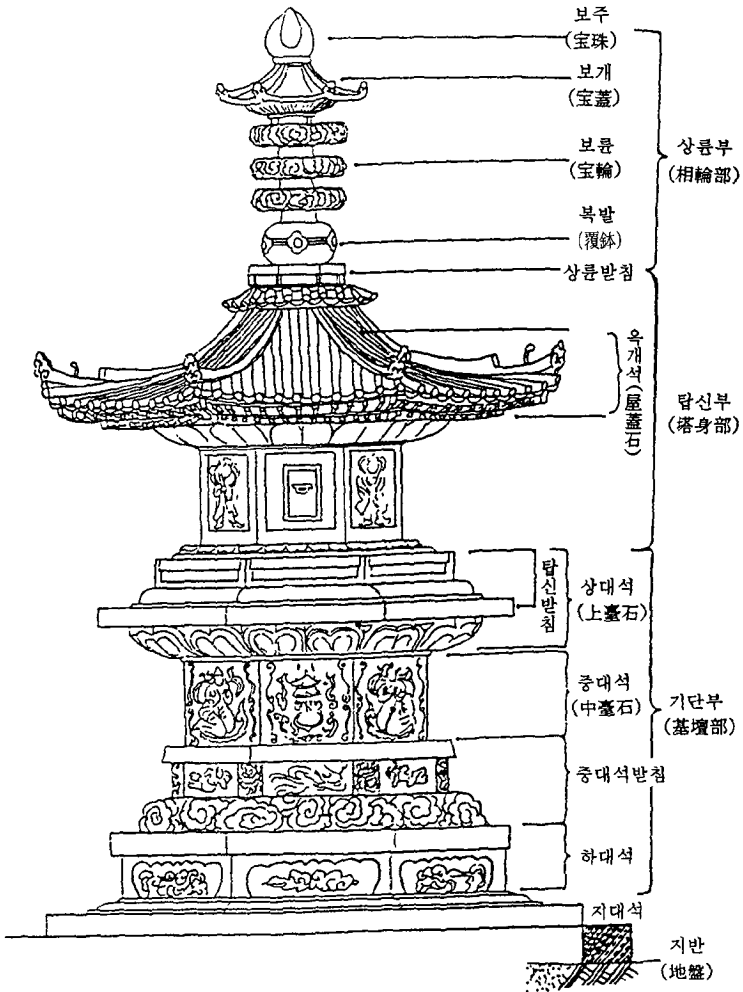
〈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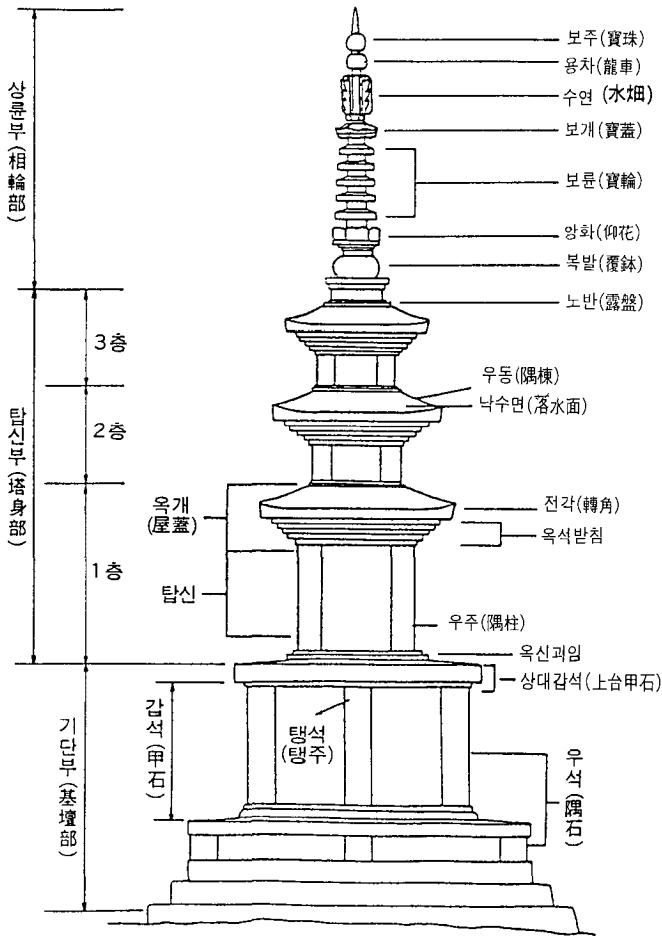
〈幢竿〉



〈浮屠〉



〈石塔〉



마 무 리

향토유적 총람을 위한 안양시 관내의 각종 유물과 유적을 조사하며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된 금석문 조사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탁본시기가 계절적으로 한여름에 이루어져 솔직히 탁본문 및 조사자료가 부실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없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같이 안양의 금석문은 전부가 석문이며 석문의 주류를 이루는 묘비의 수량도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석문의 다양한 형태와, 삼국시대~근세까지의 폭넓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주목되는 곳은 각종 마애부도와 불성사 만력십팔년 조 표석 및 중초사지 출토 외당인데 학술적인 가치가 높아 앞으로 세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역사의 흐름에 등장하는 인물과 많은 일들이 옛기록에 의해 고증되며 그중 금석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 있어 금석문은 살아있는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안양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금석문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이전 방치되거나 무관심속에 파괴되어 땅에 묻혔을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이러한 점에 있어 본자료가 안양을 더욱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안양의 금석문을 조사하며 경기도청에서 발행한 「경기금석대관」 「경기사원지」 시흥군지와 함께 발간된 「시흥금석문」 외에 「대동금석서」와 「대전금석문」을 참고하였다. 특히 묘역 조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 안동김씨와 문화류씨, 중앙 중친회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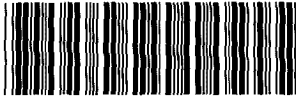
끝으로 탁본전시와 함께 발간되는 본책자가 있기까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이상운 문화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깊은 관심으로 조인한 송이섭 문화공보 담당관님과 조인주 문화계장님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틈틈히 조사와 자료정리를 도와주고 수고한 문화계 직원들,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큰 감사를 드린다.

安養金石文

- 1995년 12월 5일 인쇄
- 1995년 12월 10일 발행
- 탁본·조사편집: 김 지 석
- 발행 : 안양시, 안양문화원
- 인쇄 : 대 룝 기 획
(T.0343-44-0447)



국립중앙도서관



RF005628

5623

年壬辰正月二十

之原合封焉女適

禦趙禹錫妻兵使

內外孫曾男女若